

전능하신 아버지,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찾아오기 위하여 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건강한 믿음으로 믿어주시는 사랑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요한계시록 3:10)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2월 15일 (토) 제 147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화려함에 가려진 러시아의 그늘 '이슬람 문제'

## 퓨포럼, 정치적 스포츠 축제 소치올림픽으로 인해 이슬람 갈등 부각 보도

지구촌 88개국 3천여 명이 모여 벌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치 동계올림픽이 8일 개막했다. 올림픽은 축제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510억 달러 이상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고 예산이다. 개막식은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탄성을 자아내기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에 가려진 러시아의 그늘도 있다. 소치올림픽은 개막 때까지 인권 탄압, 이슬람 반군의 테러 위협, 인프라 부족 등 우려가 되어온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소치올림픽 개막식에는 미국의 오바마, 캐나다의 하퍼, 독일의 메르켈, 영국의 캐머런, 프랑스의 올랑드 등 각 국가수장들이 불참했다. 러시아의 인권 탄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러시아는 지난 해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과 교회를 비난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신성모독금지법을 통과시켜 인권과 자유 탄압에 대한 세계의 지탄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소치동계올림픽은 그동안 가려져왔던 러시아의 그늘 즉 무슬림들이 얼마나 러시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집중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 반군들은 항공 테러,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이슬람반군의 테러로 인해, 현재 올림픽 경기장 주변은 삼엄한 통제로 현지 목회자들조차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별도로 마련된 집회 장소에서는 사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공연이 가능하다

따라서 퓨리서치센터는 세계 언론들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러시아의 무슬림 상황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ochi Olympics shine spotlight on Russia's Muslim population).

2009년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러시아 정교이고, 그 다음이 이슬람이다. 러시아에는 현재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1천5백만 정도의 무슬림이 있다. 인구 숫자상으로는 유럽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정확한 러시아의 무슬림 인구에 대해 알 수 없지만 2050년경 러시아는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의 정치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정부도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해주기를 러시아의 기혼 여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현재 인구 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의 1억4천3백만 명에서 1천만 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방의 지도자들도 러시아가 무슬림 국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소치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에는 무슬림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데, 수십 년 후에 무슬림들이 러시아에서 다수 민족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무슬림들은 지난 1989년 이래로 40-50%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도 매우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 붕괴 당시 러시아공화국에는 300개 정도의 이슬람 모스크(성전)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8천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고, 2015년경에는 2만5천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이슬람

이 확장되는 것을 러시아정부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난 1994년 이래로 러시아 연방의 체첸공화국과 분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무슬림 인구의 증가는 자칫 러시아연방의 정치적 안정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때문인지, 지난 2006년부터 러시아정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할 시에는 1,500루블, 둘째 아이를 출산할 시에는 3,000루블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정부는 현재 양자를 입양하는 부부에게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의 이러한 보조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출산율은 지지부진하다.

(3면으로 계속)

#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라!

## 스몰그룹닷컴, 펫 시코라의 소그룹 시작원칙 소개

지금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하려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소그룹의 시작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 동질적 요소 필수, 인원은 6-8명 적당 모임에 헌신적...가르친다는 인식 금물

첫째, 최대한 동질적인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 사이의 마음의 벽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그룹을 구성할 때는 이런 당위적인 명제를 중심으로 두고 진행할 일이 아니다. 소그룹은 그 자체로 죄인이며 연약한 자들이 서로의 삶을 직면하는 장이다. 처음부터 전혀 동질성이 없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묶인다면 이런 소그룹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무래도 혼성그룹보다는 남성그룹, 여성그룹이 좋고,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섞이는 것보다는 구분되는 것이 좋으며, 교육수준도 되도록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적어도 두세 가지의 공통점 정도는 공유하고 있어야 시작이 쉽다.

둘째, 규모를 작게 해야 한다. 처음에 소그룹을 시작할 때 반응이 좋아 많은 사람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많이 모이면 좋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물론 리더의 능력에 따라 멤버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하게 몇 명이 적절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그룹은 6-8명이 가장 적절한 규모이다. 중간에 새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겨 그 숫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2명이 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사람이 그 모임에 헌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는 리더의 말과 가르침을 듣고 따나는 관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리더가 앞에서 본이 돼줘야 하지만 그것이 혼자서 결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기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소그룹의 초창기부터 모든 멤버들이 이 모임에서 각자 자기자기가 맡은 일이나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넷째,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간증과 삶을 나누는 모임은 얼마까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안에서 공부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있다는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성경 이외의 신앙서적을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성경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매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에 집중해야 한다.

(2면으로 계속)



2면

지친 순례자 위한 안전한 장소돼야



7면

아브라함 카이페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9면

리처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연합장로교회)



16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대학선교, 수필가)

# 국제 21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 DISCIPLE<sup>ST</sup>

# “평신도를 깨운다”

주강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강사 강명옥 전도사, 박주성 목사  
일시 2014년 4월 28일(월) - 5월 3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T.714 635 3000)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담임목사 참가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정원 160명  
등록서류 신청서, 후보, 사진 1매  
등록비 \$390(숙식 및 교재 포함)  
등록마감 2014년 2월 28일 (금)

### 제 14기 제자훈련 체험학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제자훈련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자훈련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돕는 Workshop입니다.  
강사 박주성 목사, 최순성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4년 5월 5일(월) - 5월 8일(목)  
대상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수료자  
등록비 \$250  
등록 마감 2014년 2월 28일 (금)





# 시론

## 초심을 잃지 말자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얼마 전에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란 글을 읽고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있다. 그 내용을 줄여 소개해본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 순수한 마음, 배우는 마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에 찾아옵니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BC 460-370)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렸는데 질병보다는 환자를, 의사보다는 환자를 치료의 중심에 놓고 환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인술을 펼친 자로 그가 만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문”이 있다. 1948년 세계의사협회(WMA)가 그 선서문을 편집하여 만든 “제네바 선언문”은 의학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치르는 입문식으로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한다.

“나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데 있어 나이, 질병/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위험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많은 의사들이 그 선서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치료 불가능한 질병퇴치를 위해 연구하며 인술을 펼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처럼,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 결혼할 때의 서약을 마음에 새긴다면 평생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초심을 잃었기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진다.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진실 성실 열정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청렴 직장인, 청렴 사업가, 청렴 공직자, 청렴 종교인이라 별명을 듣기가 힘들어져간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처음 세움을 받을 때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그렇게 감격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당당히 약속을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변질되어 겸손대신 교만함, 순수함보다는 이기심, 나아가 직분의 횡포자까지 전락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망가져도 자신의 위치와 이익에만 연연하는 모습, 위로자와 격려자로,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멸시,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우리가 처음 교회생활을 할 때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만사를 보았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본다면 더 이상 욕심도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 없고 겸손과 감사만 있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종이 된 우리 모두 초심의 신앙, 초심의 섬김을 회복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 지친 순례자 위한 안전한 장소돼야

## 스몰그룹닷컴, 래리 크랩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본질적 질문 소개

정신없이 돌아가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별 의미 없는 짧은 만남과 피상적인 대화를 되풀이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고 자위한다. 그러는 동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친밀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오랫동안 공동체에서의 성령의 일하심을 탐구해 온 래리 크랩(Larry Crabb)

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 어떤 영적 가면도 없이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제시해준다. 한마디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까지 기꺼이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영적 공동체라고 말한다.

영적 공동체의 모든 것은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로 움직인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인다. 우리가 받은 복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과 수치의 장벽을 부순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로 묶는 것은 가두 행진을 벌일 만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공공연한 실패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깨어진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서로를 향해 의자를 돌린다. 이렇게 깨어진 이들은 상처받고 염려하며 때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면서 함께 여행하지만 그 깨어짐 너머에 뭔가 살아 있고 선하며 온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선하며 온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이 험겨워질 때, 정서적



는 소리가 들린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피합니다. 저는 구조 받기 위해 산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참여하고 싶다는 깊은 갈망이 담겨 있다. 우리는 안전한 곳을 원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친구들의 공동체를 바라고 있다. 서로 대화를

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에 대답이 되어야 한다.

조직으로서 교회보다는 영적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어떤 대가든 치러야 한다.

서로를 바라보며 의자를 돌려놓고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이다. 거식증 환자가 음식을 먹고, 다중 인격 장애 환자가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며, 성 중독 증 환자가 좀 더 고상한 욕구를 갖게 하는 대화를 배워야 한다. 또한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어두

## 조직적 교회보다 영적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대가 치러야

### 약점 나누고 영적 가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며 격려

인 고통과 관계에서의 긴장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 삶을 위협할 때, 세상 문화는 인간적인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한다. 결국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삶은 목표로 삼게 된다. 충분히 오랫동안 신앙을 받았고 약을 복용했고 종교적인 처방을 받았으며 격려를 받고 권고를 듣고 기분 전환을 하고 지침을 듣는다. 그러나 영적 삶에는 조정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

보다 더 높고, 저의 모든 고통보다 더 높은 반석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소서.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외침에는 진정한 교회에 속하고 싶다는 갈망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다는 깊은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떠나는 동안 나누는 영적 대화에

나날 때 그들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하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바란다. 당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법을 찾기 위해 여념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 당신이 여행하는 곳은 어디든 함께 있어 주는 형제자매들을 갈망한다.

지친 순례자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캠페인과 자아중심의 계획들, 프로그램 제작, 교회 활동, 섬김 독려 등은 뒤로 미뤄둬야 한다.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듯 우리

운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에 이르게 하며 하늘 보좌가 있는 방에 이르게 하는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되고 결코 다른 도움을 찾아 도망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2014년, 우리가 속한 소그룹이 붙들어야 할 영적 목적이어야 한다.

(1면에서 계속)

다섯째, 리더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리더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멤버들은 자발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린다. 리더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 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 모임은 소그룹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작은 강의시간이 되고 말 것이다.

결론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성경공부를 나누는 것은 사실 현실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칠 수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 사역을 열두 제자를 키우는데 집중하셨다. 주님도 소그룹 성경공부의 효과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소그룹의 첫 단추를 실수 없이 제대로 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그룹이 유지될 수 있다.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2014년 봄학기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 화려함에 가려진 러시아의 그늘 ‘이슬람 문제’

(1면에서 계속)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가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혹은 가진다고 하더라도 1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러시아의 무슬림 가정에서는 적어도 3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무슬림 가정당 3-5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에 수십 년 동안에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 다른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인구의 급감이 일어날 경우엔 러시아는 이제 무슬림 연방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러시아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연방 내에서 무슬림과 러시아정부 간에는 일종의 긴장관계가 소비에트 붕괴 이후 증가하고 있다. 체첸공화국과 타타르스탄공화국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즉각적으로 독립을 요구했다. 체첸공화국은 이로 인해 러시아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였으며, 타타르스탄은 전쟁은 없었지만 상당할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게 됐다. 사실상 러시아 국민들은 과거의 소비에트 국가라는 애국심을 많이 상실했다. 사람들은 한 사람 이상의 아이를 가지게 될 때는 엄청난 생활비와 교육비가 증가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내에서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는 무슬림과 결혼하는 러시아 여성들도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있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슬람 NGO 단체에서 대대적으로 이슬람 선

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이슬람 사제들이나 선교사들은 이슬람 성전인 모스크와 일반 공공장소에서 러시아 청년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적극적으로 설교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으로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러시아 테러의 뿌리는 체첸이다. 소련이 해체되자 독립을 요구했던 체첸은 러시아 정부와 투쟁한 끝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독립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정부 구성을 놓고 사밀 바사예프의 이슬람 원리주의파와 아흐마드 카디로프(람잔 카디로프 현 체첸 대통령의 아버지)의 민



족주의파 등 여러 정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분열과 혼란만 가중됐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민족주의파인 아흐마드 카디로프를 적극 지원해 체첸을 러시아연방(체첸 자치공화국)에 편입시켜버린 것이다.

정권 투쟁에서 밀려난 이른바 체첸 반군들은 러시아 정부에 저항을 계속했다. 체첸 진압 와중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무자비한 진압으로 대응했다.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건(2002), 모스크바 지하철 인근 폭파 사건

(2004), 베슬란 초등학교 인질극(2004) 등 끔찍한 테러 사건은 모두 체첸 반군들 소행이다. 이들은 2007년 푸틴 대통령이 람잔 카디로프를 체첸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반군 진압에 나서자 북캅카스 산악지대 및 인접 다게스탄으로 거점을 옮겨 투쟁해왔다.

지난해 12월 테러 사건은 다게스탄에 웅거한 ‘캅카스 에미리트’ ‘샤리아트 자마트’ 등 무슬림 반군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현재 도쿠 우마로프가 이끄는 ‘캅카스 에미리트’는 과격한 테러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물론 유엔,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단체로 지목된

상태다. ‘샤리아트 자마트’는 미국 보스턴 마라톤 테러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테러 단체들이 소치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무엇보다 푸틴의 작풍인 소치 올림픽을 영광으로 만들어 양속인 푸틴 정부의 체면을 구겨놓자는 속셈이다. 또한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에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해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자신들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각인시

켰다.

브라운 감독은 연회 사람들이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에 독창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녀의 헌신 이전에도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8,500명 이상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까?”라고 그는 말했다.

소박한 시작

퍼거슨 부인과 2003년에 작고한 그녀의 남편(Earl Ferguson)은 모두 워싱턴주 골덴데일의 농촌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12살에 만나 14살이 되었을 때 데이트를 시작해 23살에 결혼했다고 말했다. 얼은 콜롬비아 강 근처의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가정에서 자랐고, 집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그가 8살 때였다고 그녀는 남편의 소박한 과거 환경에 대해 말했다.

“그는 언제나 교육을 가지 있게 여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산업 분야를 전공해 성공적이었고 4개의 특허를 수여한 2개의 회사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처음 신규업체가 팔렸을 때 부부에게 1백만 달러가 생겼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키지는 의도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소치로 잠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삼엄한 감시와 경비 말고도 소치의 지형과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서쪽은 흑해로, 동쪽은 캅카스 산맥으로 막혀 있다. 도로도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연결돼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불고그라드 테러를 자행한 테러리스트들이 애초 소치 테러를 계획했다가 여의치 않자 좀더 손쉬운 ‘소프트(불고그라드) 테러’로 대신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론으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대형 스포츠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응원단,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과 현지 선교사들은 이 기간을 복음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아왔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개막일 전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세계인들의 ‘겨울축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도 현지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등이 각국 선수와 응원단,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사역을 펼친다.

그러나 이슬람 반군의 테러 위협 앞에서 정상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소치 현지를 러시아 선교의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시도가 결행되고 있다. 즉 소치 인구의 절반이 아르메니아계이고 소치 북음주의교회 안에는 아르메니아인 예배가 따로 있기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치 현지에서는 현재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은 소치가 러시아와 중동 선교의 전방위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며 기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치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소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우리는 충분히 축복을 받았거든요. 돈도 별로 없는 농촌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얼의 첫 번째 회사가 팔린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로스알토스교회의 담임목사(Mark Bollwinkel)는 “얼의 수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의 천재성으로 그는 인터넷을 창출해내는 기술을 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퍼거슨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들의 부를 아끼지 않았다고 볼링볼 목사는 말했다.

“2003년 얼의 예기치 않은 죽음 이후에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려는 재정적인 지원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조금씩 더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 원로칼럼



박순목 목사 (충신교회 원로)

### 창문을 열고

문 닫힌 방, 두꺼운 커튼으로 밀폐되고 차단된 공간, 그곳에는 대화도 만남도 그리고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드리운다는 것은 들어오려는 것을 막고 나가려는 것을 통제하려는 발상과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공간개념에서도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에도 일어날 수 있다. 자폐증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의 이든 타의이든 간에 단절과 밀폐와 외면의 복합이며 병적 표출이다.

신앙생활의 경우에도 동서남북을 차단한 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워 밀폐 신앙만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신앙이라는 허울을 쓴 채 하나님과 만나야 할 창문을 모두 닫아버린 채 질식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뿐인가 질식할 수밖에 없는 공간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사실 자체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 많다는 것은 더욱 더 큰 일이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남양국 유다의 왕족과 귀족과 엘리트 그룹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 가운데 특히 아름답고 흠이 없고 재능과 지식과 학문에 능한 엘리트들은 바벨론 왕의 배려로 특수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출세하는 그 날까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 그가 다른 각료들의 질투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그는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았다. 극히 사소한 불의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에 비해 다니엘은 우뚝 선 신앙이 봉우리였다.

그는 박해자의 감시의 눈길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이 열었던 창문은 용기와 고백과 공개의 창문이다. 그리고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처신이었다.

창문을 열 때 은혜와 축복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자연풍의 이치와 다를 바 없다. 만일 그때 다니엘이 일시적인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창문을 닫고 적당한 선에서 묵상기도로 대체했다라면, 그리고 청년 시절에 주어졌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보신했다라면 그는 사람이 바라는 지도자 정도로 출세는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재빠르게 현실과 영합하고 필요하면 조금 전까지 열 어두웠던 창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로 행세하는 것은 다니엘의 눈으로 조명한다면 가관이다.

영혼의 창문을 열어야 이웃과의 참된 만남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닫힌 창문으로는 영원한 세계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역사의 흐름도 보이지 않는다. 꼭꼭 닫힌 창문을 여는 것이 우리들의 급선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헌금 보도

### UMC, 캘리포니아-네바다연회 평신도 바바라 퍼거슨

세상에서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Imagine No Malaria)’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로 개인기부자 중 가장 큰 액수를 기부한 연합감리교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네바다연회의 평신도인 Barbara Ferguson이 바로 그 사람이다(Donor gives \$1.1 million to Imagine No Malaria).

모든 사람들이 백심만 달러라는 돈을 기부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조금씩 더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고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기부자 중 가장 큰 액수를 기부한 그녀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작은 방법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 위치한 로스 알토스(Los Altos) 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인 퍼거슨 부인은 말한다.

그녀는 캘리포니아-네바다연회의 감독(Warner H. Brown Jr.)이 다녀온 양골라 상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후에 기부하게 됐으며, 그녀의 기부는 말라리아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을 2015년까지 근절시키기 위한 연합감리교회 캠페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회의 목표는 2015년까지 2백만 달러를 모금해 아프리카 대륙의 20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현재 이 목표의 절반에 다다랐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브라운 감독은 말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실천해가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방법들을 찾아가는 분입니다. 그녀는 겸손하고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받은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브라운 감독은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 38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38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총대 제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38회 총회 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시: **주후 2014년 5월 20일 (화) - 23일 (금)** / 3박 4일
- 장 소: **Toronto Airport Marriott Hotel** (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YYZ) 901 Dixon Rd., Toronto, Ontario M9W 1J5 CANADA ☎ 1-416-674-9400
- 등록비: 총회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미화 USD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5일까지)	2차(3월 15일까지)	3차(4월 15일까지)
2인1실	\$ 380	\$ 440	\$ 465
1인1실	\$ 730	\$ 800	\$ 825
부부	\$ 730	\$ 800	\$ 825
원로/공로	1인 \$ 280	\$ 340	\$ 365
목사	부부 \$ 630	\$ 700	\$ 725

- \*현지 선교사와 북미주교회원에 대해서는 2인 1실에 한해 50% 할인해 드립니다. (참가비 \$ 190).
- 개인숙식: 개인적으로 숙식을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등록비 \$ 130 를 납부하셔야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식비 \$ 170를 납부하시거나 식권을 구매하여 필요에 따라하셔야 합니다.
  -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천부 모임은 20일(화)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노회장들은 하루 일찍 오시기 바람)

- 등록 및 송금안내: 등록신청서와 송금은 반드시 US Money Order (은행발행)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일반 check도 가능함).

\*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Money Order는 받지 않습니다.  
\* Payable to: KAPC  
\* 보낼 주소 : Rev. Yung Il Jang (장영일목사)  
PO Box 35073, 700 Burnhamthorpe Rd. E. Mississauga, ON L4Y 2X0 CANADA

- 교통안내: 1) 총회정소인 Toronto Airport Marriott Hotel이 Toronto Pearson 국제공항 (YYZ) 근처에 있으므로 총대들께서는 반드시 Toronto Pearson 국제공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항을 이용하시면 차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셔틀버스: 25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셔틀버스 표시: Toronto Airport Marriott Hotel). Terminal 1 (제1청사): 정류장 (post) S5에서/ Terminal 3 (제3청사): 정류장 (post) C22에서 전회문의: 공항셔틀 ☎ 1-416-674-9400/ 김지연 목사 ☎ 416-999-7878
- 접수: 1) 총회 첫날 (5월 20일)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시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2) 등록마감일 (4월 15일) 이후 신청서 호텔숙박은 총준위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3)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를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 기타: 1) 영어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2) 주차 (Parking)는 호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비는 하루에 \$ 10입니다. 3) 총대분들과 사모님들을 위해 5월 21일 (수)에 나이아가라폭포 (The Niagara Falls) 관광을 준비하였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최기정 목사 (부총무) ☎ 1-647-215-7177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엄영민** 목사      서      기 **고백원** 목사  
총준위 **위원장 이상일** 목사      총준위 **서기 신동철** 목사



# 빛과 소금으로...

##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나눔의 가치

지난주간 화제가 되었던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 여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여종업원 3명에게 각각 5000달러씩의 수표를 팀으로 건네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칼레도니아 분카운티의 패밀리 레스토랑 업주인 맷 네

비우는 손님이 많지 않던 지난 1일 한 손님이 여종업원들인 에이미 사바니(25), 사라 시킹거(23), 엠버 카리오리치(28)에게 거액의 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팀을 받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인 사바니는 지역 언론인 토크포드 레지스터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처

음에 수표를 받았을 때 500달러인 것으로 착각했다"며 "그러나 금액을 확인한 후 여성에게 수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사바니는 "이 여성이 팀을 건네면서 학비와 살아가면서 필요한 데 돈을 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킹거는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마지막 학기가 남았다"며 "학비를 벌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일해 왔는데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래전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여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음내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위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배는 어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방을 찾아가서 전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방에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주로 모이는 곳이기도 전도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배는 먼

저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 다방 저 다방을 두루 순회하면서 머물면서 차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차를 함께 마시게 하며 항상 만원씩 팀을 주는 호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전도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지만 차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유한 집안에 상속자였던 목사님은 그들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온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후시 일이 있어 다방에 못 오시게 되면 그들은 궁금해 하고 목사님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길 몇 년 후 어느 날 목사님께서서는 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아프다. 그래 너희는 '레지'가 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니?"라고 의

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마디에 자리에 앉아 있던 모든 종업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 들였고 그 후 신앙 생활을 통해 한 사람 씩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훈훈한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그 목사님과 종업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작은 식당에서 거금의 팀을 준 그 여인은 무슨 의미로 팀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는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한 모두에게 복통 부에 몰아치는 한파를 녹일 만한 훈훈한 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 옆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자녀들의 재산 싸움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펼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산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해왔습니다. 킹 목사의 성경책과 노벨 평화상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을 해왔는데

지난 6일 막내딸인 버니스 킹은 에틀랜드 에버니저리교회에 모인 신도들 앞에서 자신과 법정 다툼 중인 오빠 마틴 3세, 텍스터와 형제의 연을 끊을 것을 선언했다고 방송 보도했습니다. 4남매 중에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버니스 목사는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는 질문에 "나도 매일 하나님에게 똑같이 묻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이과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계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가족이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면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지도자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리노이의 여인처럼 넉넉히 나누어주는 기쁨을, 목사님처럼 함께 아파하며 돌보아주는 사랑을, 더불어 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축복을 맞바꾼다면 어지러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 푸 / 른 / 초 / 장

## 임승진 목사

(미주평안교회)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 헤밍웨이의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멕시코 만류에서 고기잡이하는 한 노인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84일 동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드디어 85일 만에 5미터나 되는 고기를 3일간의 사투 끝에 잡게 됩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낚은 고기였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 떼를 만나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이 많습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아들 많은 복을 복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재물이 있어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건강도 잘 써야 복이

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으면 죄인의 길에 섭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죄는 나쁜 것 하나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씨앗은 금방 자라 다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본래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

간히 떠날 수 있었습니. 우리는 연약하기에 아브라함처럼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 자리를 떠났습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율법을 즐겨워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겨워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말씀이 즐거운 자가 복입니다. 말씀을 즐겨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지키는 것을 즐겨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시51:10에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는 회개의 시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범죄함의 원인이 다른데 있었던 것

에 순종할 때 힘들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행복의 길임을 체험케 됩니다.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기쁘고 만족한 양식이 되게 합니다. 렘31:12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진 심령은 "물댄 동산" 같겠다고 하였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셋째, 지혜를 얻는 형통입니다. 시119:97, 98에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묵상 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세상을 살면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잠3:18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의 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24:3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라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집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집안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 만큼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경험이나 세상의 모든 학문,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지혜, 보배로운 값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행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동행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복 있는 자의 형통함을 모두 누리게 되리니 믿습니 다. 아멘!

#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편 1편~6편)

이 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롬 6:20-21). 사망의 열매 밖에는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고 합니다. 이는 평생을 열심히 산 다 해도 마지막은 죽음이며, 죽음이 라는 열매 외에 삶의 궁극적 열매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습니까? 고향, 부모, 형제, 자기 친구들을 떠났습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하나님 없는 삶이므로 과

이 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롬 6:20-21). 사망의 열매 밖에는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고 합니다. 이는 평생을 열심히 산 다 해도 마지막은 죽음이며, 죽음이 라는 열매 외에 삶의 궁극적 열매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습니까? 고향, 부모, 형제, 자기 친구들을 떠났습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하나님 없는 삶이므로 과

이 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롬 6:20-21). 사망의 열매 밖에는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고 합니다. 이는 평생을 열심히 산 다 해도 마지막은 죽음이며, 죽음이 라는 열매 외에 삶의 궁극적 열매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습니까? 고향, 부모, 형제, 자기 친구들을 떠났습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하나님 없는 삶이므로 과

이 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롬 6:20-21). 사망의 열매 밖에는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고 합니다. 이는 평생을 열심히 산 다 해도 마지막은 죽음이며, 죽음이 라는 열매 외에 삶의 궁극적 열매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습니까? 고향, 부모, 형제, 자기 친구들을 떠났습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하나님 없는 삶이므로 과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했거나 2014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4년 5월 16일(금) ~ 19일(월)
- 2) 고시 장소: Toronto, Canada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 주해 - 레위기 21:1-9
- (2) 신약 주해 - 누가복음 16:19-26
- (3) 논문 제목 - 표절과 목회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오
- (4) 설교 본문 - ① 신약 : 고린도전서 15:1-10

③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④ 필기고시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분을 중심으로 설교실기고사를 치를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4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명함판 사진 2장
- 7) 고시료: \$150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4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8회 총회기간(5월 20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에게 5월 16일~20일까지 속소를 예약할 것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Rev. Se Young Han) / Email : syhan91@hotmail.com

4313 Markham St. An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 8. 기타 문의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 허상회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2)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3) 영어권 안내 :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과연 약대(낙타)가 성경의 기록연대를 결정할 수 있는가? 성서고고학과 성경학자들 사이에 일어난 새롭게 논쟁의 뜨거운 감자이다.

지난 2월 7일자 Bible and Archeology News에 Noah Wiener는 약대의 가축화가 성경의 기록연대에 대하여 도전한다는 글을 실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Erez Ben-Yosef와 Lidar Sapir-Hen 고고학팀이 An American Friends of Tel Aviv University News에 약대가 주전 10세기 말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축화 되지 않았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에 의하면 약대의 가축화를 통일왕국 시대인 주전 1000년 이후로 보는 것이다. 이들의 발표가 논란과 관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논문은 "어려한(약대 가축화의 역사적 연대에 대한) 시대적 착오는 성경의 사건이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후에 편집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

근동과 중앙아프리카의 물이 없는 지형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약대는 등에다가 1천 파운드 이상의 짐을 지고 하루에 30마일 이상 여행하고, 여러 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운송 수단이다.

동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약대의 혀의 두꺼운 임의 구조는 거의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다. 심지어는 가시가 달린 것들도 먹는다. 그리고 거의 투명한 눈꺼풀은 눈을 감고도 볼 수 있으며, 날아오는 모래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암컷 약대는 해산 후 18개월 이상 하루에 1갈론 이상의 밀크를 제공하고, 또한 약대의 똥은 연료로 사용한다. 사막과 거친 곳을 여행하는 대상들에게는 최고의 도구이다.

그래서 약대는 무역의 교통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돈벨기가 되는 비싼 향료, 몰약, 사프란 염료, 계피 등의 주산물들은 약대의 등에 실려서 아라비아에서 지중해 해안까지

그리고 인도까지 나가기 되었다.

텔아비브 대학 연구팀의 주장은 약대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과 요셉 시대에는 가축화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근거하여 성경기록의 역사성에 대한 도전한다. 모세의 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자신들의 후기 기록을 입증하는 증거들로 제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약대의 가축화가 성경의 기록연대를 뒤로 늦출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

첫째로, 그들이 사용한 연대측정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탄소방사능동위원소 연대측정 방법의 정확성은 모두가 동의하는 완전한 측정방법은 아니다. 정확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둘째로, 연구자들이 검사에 사용한 뼈가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가축화된 약대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그 약대뼈의 연대측정이 정확하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기록연대를 늦추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들이 약대뼈의 가축화 연대를 성경의 저작시기를 늦추는데는 선결되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이스라엘 전역을 통해서 다른 약대뼈가 있는지를 완전히 확인하고 그리고 아무 것도 없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

역사자들은 족장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확실히 팔레스틴 지역에 약대가 존재한 것으로 본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밧단아람에 보낼 때에도 약대를 10마리에 선물을 싣고 떠나게 했다. 욥기에는 욥은 약대가 3천이나(욥1:3) 소유했고 회복 후에는 약대 6천 마리를 소유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선물로 다른 동물과 함께 짓는 약대 30을 주었다(창32:15). 짓는 약대 30은 그가 소유한 약대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BC 1800년 초엽에는 약대는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틴 사이의 사막을 횡단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주전 1450년경 출애굽 시대의 애굽에 임한 재앙 중에 약질이 임한 가축의 리스트에 약대가 들어가 있었다(출9:3). 약대가 이미 추가적이었던 말이다. 출애굽한 후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새김질하고 굵이 갈라진 동물은 먹지 못하는데 이중에 약대가 들어간 다(레11:4, 신14:7). 약대가 많이 있었다는 말이다. 구약에서 약대가 57번 나오는 가운데 위의 두 번을 제외하고는 약대를 소유물 또는 수송수단으로 말하고 있다(사66:20).

주전 1100년 사사기에 나오는 미디안의 공격 시에는 '미디안 족속의 약대의 무수함'을 말한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다'라고 했다(삿6:5).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로마케톨릭교회는 성자처럼 완전한 신자들만 천국에 가고 보통 신도들은 지옥과 천당의 중간상태인 연옥에 간다고 하는데 천당과 연옥에 대한 케톨릭 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판해야 합니까?  
-어느 장로

**A:** 로마케톨릭은 죽은 자의 사후영혼의 거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지옥과 천당에 추가하여 다른 세 곳이 망령들의 거처로 되어있다고 말합니다.

1) 모든 세례 받지 못한 장년과 세례를 받은 후에 죽음에 이르는 죄를 인해 세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와 화목하지 못한 채 죽은 장년들은 즉각적으로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2) 그리스도인 완전의 상태에 도달한 신자들은 즉각적으로 천당에 간

### 죽은 자를 위해 미사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교리는 비 성경적

다고 합니다. 3) 부분적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 즉 교회와의 교제는 있으나 불안정하게 신앙생활하다 죽은 자들은 연옥에 간다고 합니다. 4) 구약의 신도들은 선조림보(Limbus patrum)인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들은 부활 때까지 복된 견신(beatric vision of God)없이 또한 수난 없이 유지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5) 세례 받지 못한 영아들의 영혼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영아림보(Limbus infantum)라는 곳으로 간다. 이교도의 자손이나 기독교도의 자손이나를 불문하고 모든 세례 받지 못한 영아들의 영혼은 영아림보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 교리의 기초는 요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한 말씀에 의하여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하여 세례가 중생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아나아 어른이나를 불문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케톨릭은 한 마디로 영세구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세례와는 관계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케톨릭의 트랜트공의회(Council of Trent) 결정에 의하면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한 영혼들은 연옥에 가서 천국 갈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연옥에서 받는 고통은 "불의 고통"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보다 큰 것이라고 합니다.

신부는 교인에게 미사를 베풀거나 혹은 그 교인의 가족 중 별세한 자를 위하여 미사를 베풀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연옥에서 구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행사 때마다 교회를 위한다는 의미로 돈을 요구합니다. 트랜트 회의는 연옥에 관하여 두 가지를 결정했으니 즉 연옥이 있다는 것과 거기 있는 영혼들이 지상교회의 기도와 미사에 의하여 해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비성경적인 연옥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요5:24).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 그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날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연옥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 약대뼈와 성경 기록 연대 추정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과연 이스라엘 내에서의 약대의 가축화 연대가 성경기록연대에 대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학자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Archaeology Odyssey의 2002년 9/10 월호는 Ancient Life라는 고대사회의 연구특집에서 약대의 가축화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었다.

동물학자들의 견해는 성서고고학자들의 주장보다 훨씬 이전에 약대가 가축화되었음을 말한다. 두 종류의 약대가 있다. 흑이 1개 있는 단봉 약대와 2개가 있는 쌍봉약대이다. 쌍봉약대는 중앙아시아의 대 초원과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관련이 있었으며 단봉약대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많은 종류이다. 현재는 대부분 중동지역에 분포된 단봉약대가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단봉약대는 남부 아라비아에서 가축화를 시작했었다고 한다. 아마도 주전 30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같은 시간 쌍봉 약대 Bactrian는 북쪽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되어서 동부 페르시아에서까지 가축화가 되었다.

가축화가 된 약대는 험하고 먼 길을 가는 여행에 많이 사용되었다. 약대는 운반되었다. 또한 약대는 전쟁의 강력한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헤로도토스는 주전 546년의 페르시아 제국이 리디아의 아나톨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중요한 이유로 지적했다. 리디아 제국의 말들이 사막에서의 약대의 시력과 역한 냄새를 이기지 못해서 패했다는 것이다.

오늘의 이슈는 이스라엘에서의 약대 사용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이다. TAU의 Erez Ben-Yosef와 Lidar Sapir-Hen는 지중해 에게해 동해안 지방인 라브트 남부 구리 광산에서 발굴된 낙타 뼈에서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하고 아라바 골짜기의 약대의 가축화는 주전 12세기부터 주전 9세기로 추정했다. 이 약대 뼈는 그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가축화된 약대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굴 작업은 2009년도와 2013년도에 다른 지역도 발굴했다.

연구자들은 이집트인들의 제련기술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축으로 기른 약대의 수출과 연관을 짓는다. 약대의 사용은 광산산업을 변화시켰다. 약대들의 사용은 그전의 운송수단인 나귀를 타고 갈수 없었던 먼 지역까지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전 7세기에는 향로길 Incense Road 무역로를 발전시켰고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로

이 사용한 샘플이 가장 오래된 약대 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발굴된 뼈 가운데 가장 오래된 약대뼈'와 '가장 오래전에 살았던 약대 뼈'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경에 나타난 약대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성경 66권 중에서 21권의 책에서 약대를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서 약대가 제일 처음 나타난 곳은 창12:16이다.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얻은 짐승 중에 약대가 있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인 욥기에 보면 이미 약대는 중요한 가축 중에 하나였다. 욥과 아브라함의 시대인 주전 2천년 경으로 본다면, 족장시대에 이미 약대가 일반화되고 가축화 되었다는 말이다.

어떤 학자들은 창24장의 리브가 이야기에 나오는 약대에 대해서 당시에 애굽에 약대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 이것이 약대를 말하는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당시에 애굽사람들이 약대를 길렀다는 증거가 없으며, 동물군 그림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애굽에 약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동물군의 그림도 당시에 많은 동물을 그렸을 것이다. 당시의 모든 동물들을 그린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약대는 신약에서도 모두 6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약대를 통해서 비유들을 드셨다.

나는 Ben-Yosef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조사한 약대뼈가 이스라엘 지역의 가축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과거 몇백년 동안 사람들은 발라도의 역사적 실존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회의를 표현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발라도 비문이 발굴됨으로 모든 영터리 주장들을 잠재웠다.

TAU 팀의 주장은 약대뼈는 모세의 오경의 기록연대를 한참 후대로 늦추고 싶은 욕심과 의욕이 앞서서 증거가 되지 못할 것을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장을 뒤엎을 '아브라함 시대의 약대뼈'가 발굴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잠잠할 때에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듯 '약대뼈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유머를 기대해 본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 재건남가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재건남가주장로교회는 36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재건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 이신 분
-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
- 3년 Term으로 사역 가능하신 분
-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을 가지신 분

### 제출서류

- 한글, 영문 이력서
-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비전 및 자신의 신앙고백서
-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안수 증명서
- 한국어 및 영어 설교 Tape or CD
- 추천서

### 제출처

The Revived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1732 S. Verne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수신 : 청빙위원장

### 기타사항

1. 청빙에 관한 문의사항 email : brianle91@gmail.com
2. 제출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한글 : _____ 영 어 : _____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종교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나하리(NAHARI)



인도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사회적 여러 집단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하나의 민족집단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중

국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인도의 인구는 9억3천5백만 명 이상이다. 전체적인 인구밀도는 1평방마일당 762명이다. 인도는 네 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는데 히말라야산맥, 북부하천의 평야지역, 대간고원, 동서부 가츠산맥이 있다. 다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조건 또한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열대기후에서 온난기후까지 매우 다양하다. 18,700명 정도의 나하리인들은 오리차 주에서 뿐만 아니라 마드야 프라데쉬주의 라즈푸르, 빌라

스푸르, 삼발푸르 지역에서 발견된다. 언어는 인도-아리아어계에 속하며 구체적 생활양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매우 적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7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농지는 극히 작으며 대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가축, 특히 뿔이 있는 소, 물소, 말, 노새 등을 키우는 것은 농업경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물들은 고기로 이용되기는 거의 전부가 짐을 지는 짐승들이다.

인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적이다. 많은 힌두교 조직들은 엄격한 카스트(caste)제도를 포함해 세속적인 인도사회에도 폭넓

은 영향력을 지닌다. 카스트는 직업이나 혈통에 의해 정의될 수 있으나 예외도 있다. 나하리인들을 정확하게 카스트 제도 안에 위치할 만큼 그들에 대해 알려진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생활양식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하리인들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신앙

파오인들의 99.9%는 힌두교도들이며 힌두교의 기본적인 관습과 전통을 따른다. "힌두교"라는 용어는 서기 1200년경에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믿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종교에는 창설자도 신지자도 교리체계도 없다. 신학이라기보다는 오

히려 생활양식에 훨씬 더 가까우며,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이다. 서양에서의 일반적인 신앙과는 달리 힌두교는 고대의 것도 아니며 신앙의 고정된 체계를 갖는 것도 아니다.

힌두교도들 대다수는 최상의 존재를 믿는다. 어떤 힌두교도들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야채만 먹는다. 반면 다른 힌두교도들은 신전에 제사 드려진 고기를 아무 구에 없이 먹는다. 어떤 힌두교도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매우 개인적인 것이지만 다른 힌두교도들에게는 비개인적이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이 "브라마" (창조자), "시바" (파괴자), "비시누" (보존자), 여신 "샤크트리"를 숭배하는 반면, 또 다른 작은 신들의 신전과 그들의 화신이 된 물체, 배우자나 자손

도 숭배한다. 윤회(죽음과 재탄생의 계속적 순환)에 대한 믿음은 힌두교에서 한결같이 믿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나하리인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종족집단이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성경도 영화 "예수"도 아직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들의 언어로 방송되는 기독교 방송도 없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없다. 그 결과 나하리인들 가운데 알려진 기독교인은 2명이다. 인도의 나하리족 가운데 토착교회가 세워지려면 뜨거운 중보기도와 개척선교사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굿윌스토어 점원, 거액 주인 찾아 돌려줘

미시간주 먼로시의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타일러 지들리언(29)씨는 지난달 29일 기증품을 정리하다 오래된 정장 상의의 주머니가 유난히 불룩한 것을 발견했다. 주머니 속을 확인해봤더니 100달러짜리 지폐 다발이 든 봉투가 나왔다. 10장씩 묶인 현금다발은 근처에 있던 유행 지난 예복에서도 발견됐다. 이렇게 찾은 돈이 4만3100달러였다. 일부는 1930년대 발행된 낡은 지폐였다. 지들리언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다발이 나온 옷에서 지갑을 찾아냈고, 지갑 안에 적힌 이름을 토대로 인근 주민들을 수소문해 주인을 알아냈다. 이름과 나이를 밝히지 않은 이 남성은 경찰에게 "돈을 찾아준 은인을 따로 만나고 마음을 표시하겠다"며 "이런 사람이 요즘 많지 않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친척 어른의 장례를 정리해 옷을 기부했던 그는 옷 속에 돈이 들어있었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지들리언 씨는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다"며 "제 행동이 특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먼로 경찰서의 크리스 밀러 경사는 "주머니에 조용히 돈을 넣어도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며 "이 청년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증명했다"고 얘기했다.

굿윌스토어는 미국갑과 기부의 비영리 종교품 가게로 한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애틀 시호크스' 선수들 신앙고백

슈퍼볼 챔피언에 오른 미국 미식축구 팀 시애틀 시호크스 선수들이 우승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3일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경기장에서 열린 프로풋볼리그(NFL) 챔피언결정전 슈퍼볼에서 팀 창단 38년 만에 시호크스의 첫 우승이 확정되자 기독교 선수들은 경기장 밖에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

했다. 시호크스는 이날 유력한 우승후보인 덴버 브롱코스를 43대 8로 크게 이겼다. 시호크스는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소속팀으로 2006년 슈퍼볼 결승전에 올랐지만 우승을 하진 못했다.

축포가 터지고 형형색색의 종이조각이 흩날리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승리의 감격에 젖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많은 기독교인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팀의 리더인 쿼터백 윌슨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동료와 코치진은 함께 승리를 믿었고 무엇보다 좋은 하나님을 믿었다"며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지금 이 순간을 미리 계획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오픈시브 테일인 러셀 오웬은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다"며 "선수로서 쓰임 받고 이 일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기쁘다"고 감격했다. 선수들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공격수인 마이클 로빈슨과 더그 발드윈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했다.

시호크스 선수들은 평소에도 깊은 신앙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달 워싱턴 주의 한 선교단체 인터뷰에서 간증했다. 윌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다"며 우승을 자신했다. 톱키 세토 코치는 "예수는 슈퍼볼을 포함한 그 어느 것보다 귀하다고 말했다."

홀더 법무 '동성부부에도 동일한 권리제공'

미 법무부 에릭 홀더(Eric Holder) 장관은 지난 8일 동성애자 권익단체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모든 법적 문제에 있어서, 동성결혼을 전통적인 결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홀더 장관이 10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동성부부에게 일반부부와 완전히 동일한 혜택



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모든 법무부 직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사법부 관계자는 밝혔다.

홀더 법무장관은 인권캠페인(Human Right Campaign)의 뉴욕시 갈라에 참석, "법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나, 미 법무부 소속 직원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연방정부의 법 아래에서, 동성결혼 부부에게도 이성결혼 부부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CNN의 보도에서 홀더 법무장관은 동성부부의 파산 신청권, 서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9.11 테러 등의 피해를 입은 동성 배우자에게 사망보상금·교육비를 지급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혜택을, 동성결혼을 허용한 34개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연방정부가 사법권을 가진 주에서만 적용된다.

홀더 장관은 "1960년 시민권리운동 당시에 같이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위해 이 세대가 노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순간에, 법무장관으로서 법무부가 단순히 방관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캠페인 채드 그리핀(Chad Griffin)은 이 같은 사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했다. 퍼킨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 사법부는 동성결혼에 대한 승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비록 주에서는 이러한 연합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이번 행정부의 무법주의에 대한 하나의 실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킨스 회장은 "지난해 여름 원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결혼이 승인된 주에서는 연방정부 역시 이를 승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동성 커플을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 주의 커플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모든 주에서 이러한 결함이 원저 판결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에서 결정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연기하는 연방정부의 의무'에 반한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 이슬람반군, 알라위파 민간인 21명 사살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평화회담 재개에도 시리아 곳곳에서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SOHR)는 10일



급진 이슬람주의 반군이 전날 하마의 알라위파 총력인만을 공격해 민간인 21명과 친정부 민병대원 20명 등 4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SOHR는 현지 활동가들을 인용해 만을 겨냥한 이번 공격은 수니파 급진 이슬람주의 반군이 주도했으며 알라위파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10명은 일가족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알라위파는 시아파의 분파이며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 집권층이 알라위파 출신이다.

뉴욕주 상·하원 '동해병기' 입법화 추진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의 의무화가 통과된 후 뉴욕주에서도 상·하원이 함께 '동해병기' 입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과 한인 교포들은 10일 뉴욕주 주도 올버니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간되는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조항을 현행 뉴욕주 교육법에 넣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회견에서 "역사는 대개 승자가 쓰는 법인데, 흔히 알려진 일본해 명칭은 한국인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연상케 한다"면서 "동아시아 역사를 배우는데 있어 뉴욕주 학생들이 더 중립적이고 완전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을 악하고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뉴욕 곳곳에도 이름을 2개 사용하는 지역과 거리가 많듯이 바다 이름을 두 가지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입법을 주도하는 에드워드 C. 브론스틴 의원도 "일본해라는 (단일) 명칭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동해라는 이름을 함께 써야 한다는 정당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주 상·하원의 동해 병기 입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한인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내로 한인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법 지원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YWAM DTS / Dominican Republic 2014 COMMUNITY DEVELOPMENT DTS



CD DTS



세상은 크리스찬을 볼때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CD DTS는 성경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3개월의 강의와 2개월의 아웃리치를 통하여 함께 공동체로 살며 주님의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DTS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DTS 목적

- Gather & Challenge (모이고, 도전하게 하는것)
Inspire & Develop (고취하고 개발하게 하는것)
Shapen (연마 시키는 것)
Prepare (준비 시키는 것)
Impart (전하는 것)

훈련 기간

강 의: 2014년 4월3일~6월26일
전도여행: 6월27일~8월21일

신청 및 연락처

www.uofnvillamella.com

Lecture Fee : \$2,500(USD) room/board

(Dominican, Haitian Student) \$1,000

Outreach Fee: \$1,000+Airfare

YWAM CD DTS

1516 Betancourt St. Bella Visa, Santo Domingo, D.R.

TEL: 213-247-9116

E-mail: davidpark1781@gmail.com / evergracekim@gmail.com

연락: 허승호 선교사 / 박 남수 장로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9)

정성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 칼빈주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투쟁

이러한 흐름 반 프린스터가 쌓아온 학교 논쟁에 카이퍼가 체계적으로 이어 받았다. 카이퍼는 그의 영적인 스승의 소극적인 발언과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철저히 논리화하고 체계화해서 개혁주의 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다. 1869년 5월 18일에 카이퍼는 '국민의 양심에 호소함'이라는 연설을 했다.

카이퍼의 연설의 요점은 이렇다. 당시 진보적인 '국가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가를 열고 학교정책을 독점하기 때문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개혁주의적 신앙노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다원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구체적인 그의 교육정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즉 그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제도

화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로 이루어지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제한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사회구조가 획일적이 아

카이퍼의 이런 논지로 말미암아 화란 정치계와 교육계는 엄청난 교육 논쟁에 휩싸였고, 카이퍼에 대한 도전도 만만치 않았다. 카이퍼는 이를 교육의 자유화(Ver-

rijheid van Onderwijs)라고 했고 또 이런 학교투쟁(Schoolstrijd)은 바로 연약의 자녀(het kind des verbonds)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카이퍼는 의무교육이 학부모를 억압하고 통제 감독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카이

퍼가 1874년 1월 실시된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상원에서 그의 처녀연설을 했다. 그때 카이퍼는 국민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학교 교육은 인간의 지식 즉 인문학, 심리학, 종교, 사회학, 교육학,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심오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국가와 교회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은 부모의 신앙과 세계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공정하게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카이퍼는 이 연설에서 다양한 교육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깨우쳤다. 또한 그는 학교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정책을 폈다. 세금이 공립학교만을 위해서 쓰여서 안 되고 사립학교와 가난한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878년 카이퍼는 반혁명당의 정강정책인 '우리의 계획'(Ons Program)을 발표했다. 이 정강을 통해서 화란에는 최초의 기독교적 입장에서 대중정당으로 거듭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 자유고등교육기관(De Christelijke Vrije Hoogeschool)으로 1880년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하

게 되풀이해서 언급했다. 카이퍼는 헌법 개정을 위한 토론에서 독자들에게 그들의 목표는 반혁명적인 사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를 위한 반혁명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전국적인 학교제도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양원을 결정적인 찬성표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만일 1848년과 같은 이례적 상황이 일어난다면 헌법 개정이 성사 될 것이라는 예견도 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국가가 모든 학교들에게 요건과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른바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유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즉 국가가 법의 잣대로 진실한 신앙인들의 이상을 꺾으려고 했다. 카이퍼는 이에 반대했지만 1878년에 7월 18일에 진보주의자들의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 되었다. 그러나 카이퍼는 왕에게 국왕의 재가를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Peoples petition)활동을 즉시 시작했다. 카이퍼의 주도하에 일주일 만에 305,102명의 개혁교회와 성도들이 서명에 참가했고 심지어 가톨릭교도들도 164,000명이 힘을 보탤었다. 카이퍼의 이런 활동으로 진보주의자들의 학교 정책을 무력화 시켰다.

## 부모의 신앙과 세계관 따라 선택되는 교육의 자유화 주장 반혁명당 정강정책 '우리의 계획' 발표후 자유대학교 설립

고 교육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허가하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카이퍼는 국가에는 가난한 부모들이 재정적으로 그들의 분별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교회와 세속적 학문 간에 일어나는 상충되는 이익을 규제화 하거

기에 이르렀다. 카이퍼가 쓴 '우리의 계획'에 있는 기본원리 12조에서는 시민이 종교와 학교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권을 재확인했다. 카이퍼는 그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복수 학교 정책을 위한 투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이란 저서에서 그가 주장했던 학교 교육 정

신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이 결코 제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기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들 이삭 대신 미리 예비해둔 양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송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 쓸데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받지 않으시면 찬송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적인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송이 바로 곧 영적인 찬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 자체가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고 있

는 내 자신의 믿음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자신을 드리는 찬송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그리고 찬송도 받으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마지막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죽여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예배(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롬12:1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산 제사이지요.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

신이입니다. 오늘날 회중찬송이 마치 엔터테인먼트처럼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을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인생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시면 찬송도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회중찬송의 회복은 영적인 찬송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초 위에 음악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찬송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기분 나는 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시33:3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회 연주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교회'라는 말은 skillfully라는 말로서 고도화된 기술로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이메일: skc0727@yahoo.com  
(다음호에 계속)

### 칼럼 음악목회 (22)

### 회중찬송의 회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원소장



어떤 이론이나 테크닉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말할 필요 없이 먼저 영적인 찬송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인 찬송입니까? 분위기가 열광하는 찬양이 반드시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와 상관없는 세속음악도 뮤지션이나 사람들이 심취하여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나 지식으로 영적인 찬양과 비영적인 찬양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장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제사) 드리는 내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4:3-5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도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되

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이 탐이 나거나 필요하여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받기 원하시는 것이 결코 제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기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들 이삭 대신 미리 예비해둔 양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송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 쓸데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받지 않으시면 찬송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적인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송이 바로 곧 영적인 찬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 자체가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고 있

는 내 자신의 믿음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자신을 드리는 찬송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그리고 찬송도 받으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마지막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죽여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예배(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롬12:1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산 제사이지요.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

신이입니다. 오늘날 회중찬송이 마치 엔터테인먼트처럼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을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인생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시면 찬송도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회중찬송의 회복은 영적인 찬송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초 위에 음악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찬송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기분 나는 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시33:3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회 연주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교회'라는 말은 skillfully라는 말로서 고도화된 기술로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75. 창조론의 기초(25) 피조물은 변한다

“중이 새로 생기잖아요?” 이 말에 깜짝 못하고 입을 닫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 반대로, 종이 새로 생겨나는 현상에 의기양양해하는 진화론자들도 있다. 마치 못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크리스천들도 있다. 보기에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처럼, 눈으로 보기에 진화가 될 것 같은 마음에 지켜야 할 마음을 빼앗겨버린다. 정말로 시간만 충분하다면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있을까?

현장을 관찰하긴 실험실에서

않았다. 성경에서는 min이란 단어가 31번 쓰였는데(창1장, 6-7장, 레 11장, 신14장, 예47장) 여기서 종류란 단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는 min이 창조된 피조물의 구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창세기 1장 25절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고 했고, 창세기 6:19에서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이라”고 명령을 하셨

창가지로 교배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종 분류 체계는 많은 오류들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현재 다른 종이 되고 정해진 개와 늑대가 서로 교배를 하는 경우처럼 종간의 교배가 너무 많이 발견된다. 종-속-과(family)-목-강-문-계로 이루어진 분류 체계는 모든 동물이 같은 혈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진화론인데 실제로는 보통 과(family) 수준인 각 종류(kind)들은 서로 교배가 되지 않는다. 성경의 한 종류는 다른 어떤 다른 종류와도 상관이 없다(따라서 사람만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종류 안에서 변이(variation)에 의해 새로운 종이 생겨난 경우를 보자, 이들은 소진화로 알려져 있지만 소진화가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유전정보의 재조합이나 정보 스위치의 개폐에 따른 결과일 뿐 새로운 유전정보가 생겨나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변이라고 해야지 소진화(micro-evolution)라고 해서 안된다.

가시고기 진화론자들이 소진화의 예로 많이 이야기하는 가시고기(stickleback fish)라는 작은 물

(species)의 판치들은 모두 다 같은 종류(kind)에 속한다. 최근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이들 중 일부 종들 간에 자연교배가 되어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다.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종류들이기 때문이다.

이구어나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살고 있는 도마뱀의 일종인 이구아나는 육지에서 서식하는 종(Conolophus subcristatus)과 바다에서 서식하는 종(Amblyrhynchus cristatus)이 있다. 이들은 종(species) 뿐 아니라 속(genus)까지 다르지만 서로 교배가 된다. 종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들은 한 종류(kind)에서 변이되어 바다와 육지에 적응된 것들이다.

사자와 호랑이 약 30여 종의 고양이과 동물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같은 종류다. 사자와 고양이는 교배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지만 고양이의 유전정보가 사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양이는 들고양이 발캣과 교배되고, 들고양이는 퓨마와, 퓨마는 호랑이와, 호랑이는 사자와 자연 교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다 한 종류인

### 성경은 생명체 표현에 종류(kind, min)만 사용, 종(species)은 없어

### 종-속-과-목-강-문-계...과(family) 수준인 각 종류(kind) 교배 안돼

실험을 하건 결과는 똑 같다. 피조물 안에서 그리고 피조물 간에 다양함은 무척 크고 종(species)이 환경에 반응하면서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커다란 변화인 종류가 바뀌는 진화는 현장에 서나 실험실에서도 결코 관찰된 적이 없다. 관찰된 사실이 없다면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진화의 증거”로 제시되었던 모든 변화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계 안에서의 변화이다. 성경은 생명체들의 변화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류(kind, 히브리어로는min)라고 한다. 창세기 1장의 창조된 종류(baramin) 안에서 모든 생물 종(species)들은 유전법칙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게 되어있다. 아직까지 이 법칙을 위반한 어떤 예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 과학적인 관찰 결과는 창세기의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성경은 생물학적인 생명체를 표현하는데 시종일관 종류(kind, min)만을 사용한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종(species)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제비꼬리 나비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과 크기의 203 종(species)의 나비들은 모두 다 창조된 한 종류(kind)로서 변이체결된 것이다.

다. 어느 한 개체는 같은 종류 안에 있는 다른 한 동물과만 교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식의 한계가 각 종류의 한계란 뜻이다. 그러므로 같은 종류의 구성원들은 서로 교배가 되는 지에 따라 구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생물들이 번성하고 땅을 채우도록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현재의 종(species)들은 원래 창조된 각 종류들에서 생겨난 후손들이지 각각 창조된 것이 아니며 아직까지도 그 종류 안에 머물러 있다.

과학 교과서나 일반 미디어에서는 생물의 기본 단위가 종(species)이다. 이 종의 기본적인 조건도 성경의 종류(kind)와 마

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바다에도 있고 민물에서도 살고 있다. 민물 가시고기는 민물에 갇혀 살다보니 민물에만 살 수 있게 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민물 가시고기의 새끼들은 바닷물에서 사는 가시고기로 적응되기도 하고 반대로 짠물 가시고기 새끼들은 민물에서 사는 가시고기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가시고기일 뿐이지 다른 종류(kind)의 물고기로 변한 것이 아니다.

핀치의 부리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오랜 동안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하나의 공룡 조상에서 모든 생물체들이 생겨나게 된 과정을 핀치새의 부리들이 다양한 것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그 부리 변화는 앞 다리가 날개가 되는 것 같은 커다란 변화(진화)가 아니었다. 갈라파고스의 13종

것이다. 방주에는 이 30여 종의 대표로 고양이 종류 암수 2마리만 태우면 됐다. 여기에서 변이를 통하여 현재의 많은 종(species)들이 생겨난 것이다.

제비꼬리 나비 무려 203종(species)이나 되는 제비꼬리 나비들은 모양, 서식지, 유충이 먹는 먹이 등에 따라 분류가 된 것인데 한 종류(kind)로 보인다. 모양과 무늬와 크기가 제각각인 나비들 203종을 한 곳에 모아둔다면 변이의 폭과 다양성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엄청난 피조물들의 다양성과 적응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보는 대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을 불신하는 근거로 삼고 말았다. 그 정점에 진화론이 있다. 성경을 부인하는 진화론은 현대교회에서 다루어야 할 최대 과제가 되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운유로 땅을 차지한 이삭

부유하게 과잉보호 속에 살아 유약한 이삭입니다. 부모사후 성인이어진 자신이 리더를 하거나 역부족이라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나 싸우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힘 다해 대처한 것보다 화를 복으로 바꾸어 삶의 지경을 기막히게 넓혀주셨습니다. 그는 물려받은 상속자 자리 외엔 내놓을만한 리더의 능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직장인데 늘 양보만 해 물러나고, 생명의 위협이 오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방패삼아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든든한 남자다운 매력이라곤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능동적인 리브가가 이런 평생원 이삭과 사는 것이 사사건건 얼마나 숨통이 막혔을까? 야곱이 약속받은 자녀인 것을 알았을 때 어쩌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지 못하고 아들을 부추겨 공모해 거짓말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두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는지? 생각해봅니다. 노모를 잃고 만난 아내 리브가가 그저 자기만 위해 받던 노모 사라 같았을까? 평생원 남편이 매사에 답답하니 결혼초기에는 이런 저런 삶은 잔소리거나 해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지존하신 왕자님에게 그 누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릴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예기도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이삭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없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삭과 하고픈 게 있으면 적당히 둘러대서 자기 식으로 살던 리브가... 도무지 서로 간에 대화도 신뢰도 없는 남남만도 못한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답답한 평생원 남편과 구대여 말을 꺼내 싸우느니 그렇게 피하게며 사는 것이 굳어 걸로는 순종하는 아내 같습니다. 이삭도 아내가 조용하니 잘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생각하듯 이삭은 평생원 명칭이었나요? 아버지가 제물로 자신을 공평 묶어 나무단위에 올려놓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위협에도 반항치 않고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죽음의 생사기로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가운데 다른 이들은 미련으로 보았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받아주시어 모든 다툼은 환난을 복의 기회들로 바꿔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저를 넘어뜨리리요. 잘난 채하고 나서다가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복을화로 바꾼 리브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화를 복으로 바꾸어 유약한 이삭이 온 가족을 온전히 보호하고 먹여 살리지 못했는가 말입니다.

이삭은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 전폭적으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먹고 산,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부모 사랑만큼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에게 부족한 남성이 때문에 애서를 편애하게 되었는지도 몰라도 결국 그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편애 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아내와 아들을 거짓말하도록 몰고 사랑하는 큰 아들은 부스라기 축복밖에 주지 못했으니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살아도 마음의 중심이 믿음을 벗어나면 언제나 죄와 실수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리브가가 자기생각에는 잘한다고 목숨을 걸고 애쓴 것이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갈래갈래 찢어 놓은 것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해 중을 울렸을까요?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문제들이 터지면 내가 나서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며 해결하려는 매시아 콤플렉스가 내 안에 큰 복병으로 숨어 있습니다. 저의 자리는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해내도록 적절히 돕는 자리인 것을 허다한 실수를 통해 빼앗겨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연약하여 넘어지기를 밥먹듯 하고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함을 깊이 회개합니다.

이제 저의 모든 급한 마음으로 굴러가는 알량한 모든 소견들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도, 생각도, 내려놓고 깊이 회개하는 맘으로 운유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녹이고 차지한 남편의 인내를 존경하며 따르려고 순복합니다. 운유한 남편이 이 땅에서 제게 주어진 최고의 분복입니다. 허락하신 복을 깊이 누리리라 결단합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 23년간 함께 울고 웃은 손인식 목사님과 베델 한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이런 교회가 잘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KCC(Korean Church Coalition) 대표간사
- 해외 3천인 목사단(UTD) 공동대표
- 이민목회연구원장
-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 주강사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미래목회 세미나 강사
- 저서  
(《열반에서 들려오는 돌탕복음》)

손인식 목사(Peter I. Sohn)는 강원도 철원에서 1948년 12월 30일 황해도 곡산에서 월남한 손원국 장로, 김화비 권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광고등학교, 고려대 재학 중 군 입대하여 제대 후 복학하지 않고 Washington D.C.로 이민(1973)가서 Washington Bible College (BA), Capital Bible Seminary (M.Div.)에서 수학했다.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1990년 12월-2013년)로서 복음의 능력을 통한 돌탕변화와 가정회복, 평신도 사역 개발과 리더십 훈련,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 북한 동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교회 역할,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의 모델교회, 2세 목회의 여호수아 connection, 영성사역을 통한 한인교회 개혁운동 확산 등에 목회 역점을 두고 있다. 손송목 사모와의 사이에 아들 세진, 며느리 주혜, 손자 하람, 하준 딸 수진과 사위 최훈, 손자 기림이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돌탕'은 돌아온 탕자를 줄인 말이다. 떠난 탕자와 될 돌아온 탕자들이 돌탕이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에 관심을 쏟는 저자는 베델한인교회를 섬기며 나는 은혜를 책으로 펼쳐놓았다. 돌탕들이 주님의 참된 아들인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민목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베델한인교회의 자취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이 책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아들의 회복이 잔잔하게 흐른다.





# 리처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운동의 정체성 이해 (6)

##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 3. 포스터와 레노바레의 사명

#### 1) 신비주의적 내적 변화

포스터의 베스트셀러 “영적훈련과 성장”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1978년부터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레노바레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내적 변화’이다. 그는 이 책에 ‘들어가는 글’을 다음과 같이 마치고 있다. “우리 인생의 내적변화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포스터가 웨이커교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가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갖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영적훈련과 성장”을 저술할 당시 그가 목사로 섬겼던 오리건주의 뉴버그형제교회(Newberg Friends Church)는 1876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웨이커교회였다. 이 교회는 1885년에 웨이커교도들을 위하여 같은 지역에 설립된 조지 폭스대학(George Fox University)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서북지역 웨이커교회들의 연례모임이 개최되는 대표적인 교회이다. 그의 신학적 뿌리는 17세기

첫째로, 자신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체험했던 거장들의 서적을 읽게 된 것이다. 그가 소개하는 글은 모두 내면의 세계를 중시하는 신비주의적 성향을 지닌 것들로서, 17세기 수도승 브라더 로렌스(Brother Lawrence of the Resurrection)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16세기 신비주의자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의 “내면의 성”, 18세기 웨이커 설교자 존 울먼(John Woolman)의 “일기”,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C&MA 목회자 에이든 토저(Aiden W. Tozer)의 “하나님을 바로 알자” 등이다.

둘째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면서도 카리스마와 열정을 가지고 작은 공동체를 인도하던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를 만난 것이다. 포스터는 자신이 남침례교에 속한 윌라드로부터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학문적이며 성경적인 훈련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합으로 인하여 직접 계시를 인정하기에 성경을 경시해온 웨이커의 전통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설득하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포스터와 윌라드는 처음부터 상당히 유사한 신학적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a god)에 못지않은 존재이다”라고 하였다. 포스터는 윌라드와 함께 레노바레를 공동으로 창설한 후 지금까지 동역의 길을 걸어왔다.

셋째로, 루터교 목사인 윌리엄 루터 바스비히(William Luther Vaswig)를 만난 것이다. 포스터가 그에게서 받은 영향은 예수를 특별하게 체험한 거장들의 글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사실이 현실에서도 실제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모임에서 심지어 평신도들까지도 이런 기도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다짐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포스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기도는 살아있고, 정직하며, 마음에서 우리나라, 영혼을 꿰뚫고, 유쾌한 기도였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담 Guyon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 달콤하게 빠져드는 일’을 거듭 체험하기 시작했다.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내가 경건한 거장들의 책에서 읽었던 체험들과 같은 느낌과 향취였다.” 포스터가 언급한 마담 기용(Madame Guyon)은 17세기 신비주의자로서,

### 웨이커교도 G. 폭스의 ‘내면의 빛’ 개념이 포스터 신비주의 영성의 뿌리

### 윌라드(성경은 하나님 목상도구), 바스비히(기도는 하나님을 관통하는 것)에서 영향

영국에서 웨이커교를 단독적으로 창시한 조지 폭스(George Fox)의 내적 체험에 있다. 폭스는 모든 사람 안에 ‘내면의 빛’(inner light)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이 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신적 체험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 신비주의자이다. 조지 폭스가 주장한 ‘내면의 빛’은 웨이커 전통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Ellen T. Berry and David A. Berry가 공저한 “Our Quaker Ancestors: Finding Them in Quaker Records”(Baltimore: Genealogical Publishing Company, 1987) 18페이지에서 “폭스는 종교는 지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내면의 빛’ 개념을 고안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의 믿음과 행동을 궁극적으로 안내하는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힘이다. 이것이 웨이커주의의 핵심이다. 그들은 이러한 개념을 내세움으로써 보수를 받는 목회자의 안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내면의 빛’을 소유하였기에 누구나 자신의 ‘목회자 또는 목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이 체험을 강조하는 웨이커들은 전통적으로 제도적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적훈련과 성장”에서 조지 폭스가 7번 언급되지만, 그의 ‘내면의 빛’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없다. 그렇다고 포스터가 자신의 신앙적 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 기초위에 포스터로 하여금 더욱 확고한 신비주의적 영성을 지니도록 영향을 준 세 가지 구체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영적훈련과 성장”을 저술한 것이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볼도록 하자.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윌라드가 1988년에 저술한 “영성훈련”에 나타난 윌라드의 사상은 포스터와 거의 일치하는데, 그도 인간의 내적 세계를 중시하는 신비주의적 신앙을 지녔던 것이다. 윌라드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목상하는 도구이다. 이 책의 270페이지에는 “우리는 성경연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 교회, 역사, 그리고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전력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탐구할 뿐 아니라 목상도 한다. 우리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 것에 초점을 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심층에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해 지니는 의미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형성된다.”

구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질서이다. 같은 책 57페이지에 “구원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의 행위는 육체적인 것이다. 우리는 다만 육체의 과정을 따라 살아간다. 종교에서 우리의 육체를 제외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삶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영성훈련을 거부함으로써 기독교 경건의 역사를 중단시켰다고 본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하여, 그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본질을 가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중심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적인 훈련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효과적인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신적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껴며 철저히 관통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바스비히가 2011년 1월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포스터와 함께 레노바레의 기도를 통한 치유 사역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영적 훈련(Spiritual Discipline)을 내적 훈련(묵상, 기도, 금식, 학습), 외적 훈련(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섬김), 그리고 단체 훈련(고백, 예배, 인도하심, 축전)으로 나누었다. 그는 이 가운데 내적 훈련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서 외적 변화를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는 내적 훈련 중에서도 묵상 훈련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 “영적인 삶의 고전적 훈련은 피상적인 삶을 떠나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 고전적 훈련은 영적 세계의 깊은 내부를 탐구할 것을 요구한다. 고전적 훈련은 공허한 세상에 해당이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한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교회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내적 변화’를 위한 훈련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레노바레가 과거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방지일 칼럼 (27) “본대로 들은 대로”

### 교통 표지판

여행자에게 그 교통 표지판은 큰 안내자가 된다. 때로 고속도로를 가면서 그 표지판을 쳐다보게 된다. 어디 가는 길이 잘 표시되어있고 거기까지 몇 킬로 뵈며 직선으로 어디, 좌로 어디, 우로 어디 삼거리 네거리 심지어 오거리 같은데서 어디로 가면 그 방향이 잘 표시되어 그 안내대로 가면 무난하게 된다. 미국을 여행할 때는 더욱 잘되었다고 보인다. 어디는 무슨 사고가 있어 당분간 통행 불가일 때는 벌써 몇십 킬로 밖에서 그 주의를 환기시켜 놓았다. 교통안내 지도가 그리 잘되어 그 지도 하나 들면 그 문 앞에 까지도 쉽게 찾게 되어 있다. 길과 번지를 알면 그 앞에 가는데 도무지 어렵지를 않다. 그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니 얼마나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준다 하겠다. 문명의 차이가 어디가나 도로 안내판을 보면 알만하다.

우리 인간은 길가는 나그네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벧전2:11) 야곱이 바로를 알현할 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이다”(창47:9) 우리를 대표하여 한 말이다. 나그네 길을 야곱자신만 걷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길을 같이 걷고 있다. 길 가는데 그 안내판 지도는 필요하다. 우리가 때로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422장) 가는 길에 고단함을 말한다. 몇 시간 걸으면 좀 쉬어 가야한다. 자동차 여행도 고단하다. 비행기 여행도 고단하다. 비행기를 타면 근처에는 가는 여행고도 비행속도 비행하는 지점 종착지까지의 거리 표시 그 비행기간 지금부터 몇 시간 후면 도착한다고 그리고 그 밖에 기온 바람 도착현지의 천기를 소상하게 예보해주는데 도표가 똑똑하게 눈앞 스크린에 명시되면서 간다. 그것을 보면서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피로도 풀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몇 시간 후에 도착 운량이 큰 도움이 된다. 기후 관계로 비행기가 흔들리면 즉각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라는 지시가 나온다. 이렇게 편하게 되어있다.

지구촌의 여행의 실제 상황인 것이다. 내 전 생애의 나그네 길 어디서 나는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인가를 밝히 알고 가고 있는가를 상기해 본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너라”(요8:14) 이런 인생관이 바로 섰다하심의 말씀은 오늘 이 말을 받는 나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보는 그 누구든지 자기 나그네길을 어떻게 할지 알아 하심이다. 실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안내판이다. 그러기에 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목상하라 하심이다. 나는 비행하면서 그 비행주는 안내 스크린이 그리 반갑다. 얼마동안 자세하게 안내하다가 꺼졌다. 얼마 지나면 다시 한다. 그 걸린 시간에 얼마나 왔음이 앞으로 얼마나한 거리가 남았음이 나타날 때 크게 피로해소의 도움이 되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그네 길의 안내가 그보다 명료하게 계시되어진 바라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입에 익게 보면서 행진해야 한다. 말씀을 멀리하면 캄캄 철야에 길을 헤매는 자일뿐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시16:11) 생명의 길이 있거니와 멸망의 길도 있는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14:12) 그러기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시37:5) 그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잠2:8) 안내하실 뿐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보전하여 주신다. 이렇게 분부하여 주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14) 불과 몇 구절의 예를 들뿐이거니와 성경에 우리 행로의 표지판을 그렇게도 명료하게 지시해주심이라. 어떻게 이 말씀 없이 내 나그네 길의 걸음을 옮기랴. 수많은 책이 산적하여 있거니와 이 생명의 말씀은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내 가는 나그네 길의 귀한 안내자인 것이다.  
(1999년, 제2권)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 ●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Feb 10-14(2월 10일-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 Feb 17-21 (2월 17일-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 졸업식 안내 ●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Orthopaedic Capital Center

### ● Online 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Jan 6-Feb 28 (1월 6일-2월 28일)

-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 Off-Campus Courses ●

#### Bangkok, Thailand

- March 31-April 4 (3월 31일 -4월 4일)  
IM 8300 Islam(이슬람)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 Korea

- April 7-11(4월 7일 - 11일)  
DI8220 Clu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iberius Rata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 필그림교회 집회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김양재 목사(서울 우리들교회 담임)를 초청 집회는 갖는다. 시간은 오후 8시.

▲문의: (201)843-2222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춘계 부흥사경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 45-16 162 St #204 Flushing) 춘계 부흥사경회가 2월 28일(금)부터 3월 2일(주)까지 열린다. 금, 토요일은 오후 8시30분, 주일은 오전 11시이며 강사는 장영춘 목사(분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

▲문의: (917)733-7387

2014 선교사역 컨퍼런스

뉴저지장로교회 선교부가 주최하고 MOM선교회와 협력하는 "2014 선교사역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일터사역 선교 세미나-자립선교를 통하여 공동체에 비전 제시"를 주제로 3월 8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9일(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열린다. 강사는 이지영(킹덤 비즈니스-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마이크로 용자사역), 이협승(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센터), 김성수(위생교육과 식수공급사업), 이주익(자연농업사역), 김태영(IT사역-Ncomputing), 자수아리(IT기술학교-Home Networking), 서니정(프리스쿨사역-기독교 문테소리). 회비는 없으며 이메일(Lhh69@hotmail.com)이나 전화로 등록을 받는다.

▲문의: (201)600-2669

담임목사 청빙

퀸즈중앙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M. Div를 졸업한 목회자로 PCUS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이종언어 가능, 목회 경험 5년 이상,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서류마감일은 3월 15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cpcq.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718)229-9191(최성호 장로)

“딸과 동역, 더 큰 사역할 것”

고 이성은 자매 1주기 추모예배

존엄사 문제로 뉴욕 주류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고 이성은 자매(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의 1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10일 동 교회에서 열렸다. 아버지 이만호 목사는 “가족이 모이면 항상 성은이 이야기할 한다. 성은이의 꿈과 비전을 이어 선한 일, 이웃사랑 실천에 모범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가족끼리 조용하게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최근 존엄사 문제가 부각되는 분위기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도록 공개하자는 주변의 권유가 있어서 추모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예배는 이만호 목사 인도로 기도 박용기 장로(KCTS 사장), 설교 김수태 목사(뉴욕어린양교회 담임), 위로사 김상태 목사(뉴욕주님의교회 담임), 임형빈 고문(엘렙경로센터, 한미총회 회장), 인사, 축도 김수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수태 목사는 로마서 8장 28절

을 본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성은이 자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의미다. 이만호 목사님은 성은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동역자를 얻은 것”이라며 “옴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두 배로 받았지만 자녀만큼 그대로 10명을 주셨다. 이 의미는 죽은 10명과 합쳐 결국 두 배로 받은 것이다. 천국에 간 성은이와 함께 이 목사님의 사역이 더욱 크고 활발하게 이 땅에서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목사는 성은 양의 소천 후 성은선교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차세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엘렙경로센터를 운영,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

한편 이성은 양은 5월 초 토니 아벨라 의원의 추천으로 뉴욕주 상원에서 주는 ‘천사상’을 받게 된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목사회 2014 상반기 일정 발표

3일 신년하례예배, 23일부터 목회자영성수련회 등

뉴저지 목사회(회장 이병준 목사)가 지난 3일 신년하례예배를 하면서 남은 회기(6월)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10일에는 하늘샘교회에서 이춘기 목사와 육민호 목사를 강사로 예정됐던 SNS의 목회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저지 목사회 남은 일

정은 다음과 같다.

△뉴저지 목회자를 위한 영성 수련회: 2월23일(주) 오후-25일(화) 점심, 파인힐 기도원, 강사 양춘길 목사 김시환 목사 △선교세미나: 3월 10일(월) 오전10시, 하나교회, 강사 이춘기 목사 △긴급세미나: 4월

7일(월) 오전10시, 뉴저지 행복한국회, 강사 이순중 목사 △은퇴목사 위로회: 5월12일(월) 12시, 품평식당.

한편 행복한국회(담임 이병준 목사)에서 열린 신년하례 예배는 경배와 찬양 이준규 목사(열매맺는교회), 사회 권형덕 목사(총무, 참아름다운교회), 기도 이순중 목사(의료선교회), 성경봉독 이은혜목사(회계, NJ순복음안디옥교회), 특송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설교 한재홍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봉헌기도 영순회 목사(미국 레오니아장로교회), 축도 김정문 목사(증경회장, 성

은장로교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는 사도행전 13:21-23일 본문으로 “신실, 진실, 기록”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목사가 되는 길을 찾았다.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있어 진실한 사람, 사역에 있어 진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록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다.

2부 하례와 만찬은 장문성 목사(서기, 새동산장로교회)의 사회로 회장 신년사와 만찬 등이 이어졌다.

뉴저지 목사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축구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오전 10시에는 남성목사합창단 연습이 행복한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목사회 신년하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공재규 사무총장 선임

뉴욕교협 산하 아시안청소년센터(Asian Youth Center, Affiliated with Korean Church Council of the Greater New York) 신입 사무총장(Chief Executive Officer)으로 공재규 전도사가 부임했다.

청소년센터 실행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영입공고를 낸 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1월 초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부로 부임한 공재규 신입 사무총장은 청소년 사역 전공으로 2012년 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Lynchburg,

Virginia)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학부는 회계학 전공으로 2008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을 졸업했다.

공 선임 사무총장은 워싱턴주에 있는 장로교회(4년), 그리고 뉴저지한마음장로교회(1년)에서 청소년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했으며 영아권과 한어권 찬양 인도자 사역도 했다.

한편 작년 4월부터 Interim 사무총장직을 담당하던 김지욱(Aaron Kim) 프로그래머 코디네이터는 사역을 계속하게 된다.



리치몬드 밀알선교단 창단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리치몬드지부 미주밀알선교단 지단 승격

이사장 배현찬 목사 추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3대 목표로 세워진 워싱턴밀알선교단 리치몬드지부 미주밀알선교단으로부터 정식 지단 승격을 받아 지난 5일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에서 리치몬드밀알선교단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창단식에는 미주와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7개 지부 밀알 단장들을 비롯해 지난 5년간 후원을 해왔던 주예수교회 교인 및 지역 밀알후원자들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배현찬 목사는 취임사에서 “10여년전 세계밀알 창립자이신 이재서 총재께서 다녀가신 후, 주예수교회는 꾸준히 밀알 선교를 협력해 오던바 이번 지단설립에 따른 새로운 단계의 후원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응답하기로 결정했다. 교회 설립 이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선교 사역을 외면한 적이 없는 선교적 공동체로 성장해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 봉헌하는 사회 선교관 건립과 함께 밀알선교단 사역을 섬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만중 미주밀알 이사장(지구촌교회 담임)은 설교에서 “보스턴 대학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를 전공하며 지역사회 선교에 열정을 가진 배현찬 목사님과 올해 사회 선교관 건립과 더불어 사회선교에 더욱 매진하는 주예수교회를 준비시켜주셔서 이번 리치몬드밀알 선교

단과 협력할 수 있게 하신 그 섭리 하심에 매우 놀라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원호 세계밀알 부총재(뉴저지 밀알선교단장)는 “장애우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봉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랑의 재산을 가져와 섬기는 사람과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사역”임을 강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리치몬드밀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축사를 맡은 조영진 목사(미국연합감리교 버지니아연합회 감독)는 “지역교회들이 장애우를 섬기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연합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의 재정적 지원을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날 창단예배에는 미주밀알 총재와 워싱턴지부 단장으로서 리치몬드지부 설립을 준비해왔던 정택정 목사가 수술 후 치유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리치몬드밀알은 2008년 11월 오진욱 목사(리치몬드 단장 취임)를 중심으로 워싱턴밀알의 한 지부로 시작된 이래 리치몬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매주 두 차례 모임(기도모임, 사랑의 교실)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와 복음 전도에 앞장서왔다.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뉴욕주신장로교회 김용익 목사 은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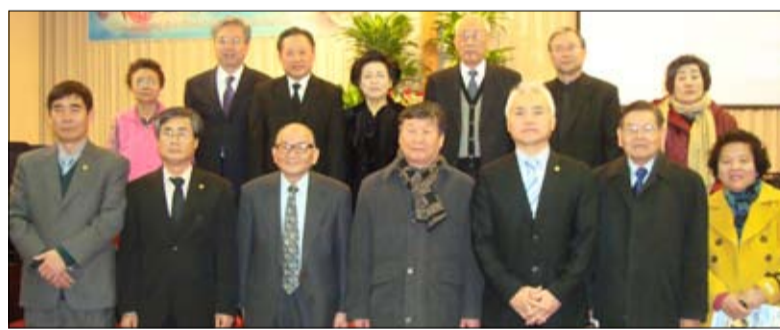
뉴욕주신장로교회 김용익 목사(사진)가 은퇴하고 유기전 목사가 취임했다. 동 교회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 담임목사 이취임식과 임직예배를 드렸다. 김용익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됐으며, 이날 교회가 속한 예장 국제연합총회 동북노회 주관으로 임직식도 열렸다. 임직자는 △장로취임: 서장순 스킨



사취임: 박준경 방경자 이상보 △명예권사 취임: 박정옥.

뉴욕주신장로교회는 1993년 김용익 전도사가 11명의 교인들과 첫 예배를 드렸으며, 1994년 5월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 김용익 전도사는 1996년 예장 합동개혁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2009년 본 장소로 예배당을 이전했다. 2011년 국제연합총회 동북노회로 편입했으며 2013년 7월 유기전 목사가 공동담임으로 부임했다. 김용익 목사는 지난 1월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유원정 기자)



고 이성은 자매 1주기 추모예배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과 예배준비에 힘쓴 임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8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아세요









목회서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피니시 웰(Finish Well)



여승훈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방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잠깐이라도 "휴학"의 부담감으로 부터 벗어난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방학도 없이 지속적으로 휴학을 받고 있다. 휴학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건강적인 이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적 문제로 주어지기도 하고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어떤 종류이든지 휴학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휴학을 풀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짤는 괴

로움이 시작된다. 동쪽으로도 풀어보고 서쪽으로도 풀어보고 남쪽으로도 풀어보고 북쪽으로도 풀어보는 등 사람의 이성이 닿는 곳이면 무엇이든지 다 동원하여 휴학을 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풀려고 했던 휴학은 더욱 엉망이 되어버리고 점점 더 미궁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숙제를 푸는 당사자는 더욱 괴롭고 더욱 고통스럽게 된다. 이런 경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 하는가? 휴학을 풀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휴학을 푸는 지혜

가 부족했던 것인가? 휴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못해서인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단 한 가지가 부족해 보인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전7:13). 휴학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휴학을 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다. 먼저 마지막 부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를 주목해보라. 아무도 곧게 할 수 없다

는 뜻이다. 인생의 휴학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스스로의 방식으로는 아무리 동서남북을 다 돌고 돈다 하더라도 휴학을 풀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괴로움과 고통의 배경에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방식에 의한 노력을 의미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당신이 받아든 휴학이 어떤 것이든지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방식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을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두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부분이다. 굽게 했다는 것은 당신이 받아든 인생의 다양한 휴학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건강 때문에 괴롭고, 경제 때문에 괴롭고, 오해와 모욕당함으로 괴롭고, 관계의 틀어짐으로 괴롭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게 하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것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휴학을 풀려는 시도를 포기

해야 하는 이유다. 사람이 가진 육은 본능적으로 스스로의 방식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휴학을 받았을 때의 반응은 가장 먼저 자신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는 말라 왜냐하면 더 오래 머물다가는 더 큰 괴로움과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허용 하신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목하라. 그렇다면 받아든 인생의 휴학을 푸는 비결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당신이 받아든 인생의 휴학을 풀 수도 있고 바르게도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의 괴로움의 감정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온과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풀리지 않고 점점 꼬이기만 하던 인생의 휴학이 순식간에 풀어지는 상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받아든 인생의 휴학을 푸는 과정 속에 하나

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롬8:28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떠올려 보라. 하나님의 선을 행 하라는 것이다. 사탄의 움직임은 우리의 죄성을 집요하게 몰고 늘어져서 받아든 휴학에 대한 부정적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 결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생산되어 나오게 하고 내면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점점 더 가득차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휴학 속에 담긴 진실이 결코 아니다. 다만 속고 있을 뿐이다. 휴학 속에 담긴 진실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선이다. 받아든 휴학이 어떤 종류라 할지라도 그 휴학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작업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작업을 주목하고 순응하여 따라감으로 당신이 받아든 휴학을 유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받아든 인생의 휴학 앞에서 스스로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므로 finish well하기를...



영 김(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거주 65지구 하원의원 후보와 미셸 박 스틸(네 번째) OC 2 지구 슈퍼바이저 후보가 30일 열린 캠페인 킷오프에서 지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후보 미셸박-영 김 공동 캠페인

슈퍼바이저-가주하원의원 선거 출마

가주 주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영 김 후보와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하는 미셸박 후보를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킷오프 행사가 지난 1월 30일(목) 부에나 파에 위치한 세븐스 홈 카페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두 후보의 캠프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인 유권자들을 추천인으로서 영 김, 미셸 박 후원 캠페인으로 미셸 박 스틸 후보는 OC 2지구 슈퍼바이저 선거구에, 영 김 후보는 거주 65지구 하원의원 선거구에 각각 출마하게 된다.

세리토스장로교회 집사인 영 김 후보, 는 "지난 7월 주하원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순항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당선을 위해 OC 교협과 OC목사회, 그리고 장신대와 성결대학교 등 교계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있다. 기독교인으로 의회에 나가 우리의 목소리 대표하

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4대째 신앙인이자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미셸 박 후보는 "어린 시절 기독교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번 선거에 크리스천 유권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OC 슈퍼바이저 직임을 수행하고 싶다.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출마하는 선거는 오는 6월 3일 예비선거를 거쳐 11월 중간선거에 당선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한편 6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사론 데이 전국공화당연회(RNC) 공동의장 초청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사론 데이 의장은 영김, 미셸박 후보에 대해 RNC 차원의 지지를 약속했다. (박준호 기자)

2014 도미니카공화국 열방대학 4월3일-8월21일, 12주 강의 8주 아웃리치

2014 도미니카공화국 열방대학(2014 Community Development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이하 CDDTS)이 오는 4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20주간에 걸쳐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비자메자 열방대학(YWAM Villa Mella, Santo Domingo, D.R.)에서 개최된다.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라는 주제로 열리는 CDDTS는 △모으고 도전하게 하는 것(Gather & Challenge) △교취하고 개발하게 하는 것(Inspire & Cultivate) △연마 시키는 것(Shapen) △준비시키는 것(Equip) △전하는 것(Impart)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 도미니카공화국 열방대학(2014 Community Development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이하 CDDTS)이 오는 4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20주간에 걸쳐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비자메자 열방대학(YWAM Villa Mella, Santo Domingo, D.R.)에서 개최된다.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라는 주제로 열리는 CDDTS는 △모으고 도전하게 하는 것(Gather & Challenge) △교취하고 개발하게 하는 것(Inspire & Cultivate) △연마 시키는 것(Shapen) △준비시키는 것(Equip) △전하는 것(Impart)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선주 목사 별세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로써 평생을 집필과 언론인으로써의 삶을 살아온 이선주 목사(사친)가 지난 10일 오전 2시50분에 소천했다. 향년 80세.



연세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고인은 언론인, 교육

자, 사회비평가 저술가, 종교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삶을 살았다.

고인은 1989년-1996년 한미신학교와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안수를 받는 등 인생 후반기에는 목사로서 한인사회에 공헌했다. 특히 2007년에는 한인민교회역사 정리한 '고난과 영광의 100년' 상·하권을 출판하기도 했다. 또 최근까지 한미인권연구소 상임고문을 맡아 인권운동가로도 활약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이해자씨와의 사이에 2남1녀가 있다.

장례식은 2월 14일 오전 3시 천국환송예배가, 15일 오후 10시에는 하관예배가 팔로스버디스에서 열렸으며 송정명 목사가 집례했다.

시민권 신청양식 변경 5월5일부터

기존양식 5월2일까지만 사용... 질문 늘어

오는 5월 5일(월)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때 바코드가 담긴 양식지에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시민권 신청서는 5월 2일(금)까지 사용가능하며 5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민국에서 시민권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수받은 양식에 담긴 내용을 이민국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데 있어 자체 오류를 줄이며,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민국 자체 내의 서류 및 정교교환에도

움을 주기위해서다. 또한 작성자로서 하여금 소셜번호, 날짜 등 기입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민국 홈페이지 uscis.gov에는 새로운 시민권신청양식이 올려져있다. 변경된 시민권신청서는 기존 10쪽에서 21쪽으로 늘어났다. 변경된 내용은 △Part 2, #12 통역자격-50세 이상의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소요됐을 때 통역을 세울 수 있다 △Part5 부모에 대한 정보-부모 중에 시민권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신청자가 18세 이전에 부모가 결혼 상태였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신청자의 부모가 시민권자일 경우 부모의 출생지와 생년월일을 기입하게 되었다 △Part8 외국에 나간 정보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5년 내로 졸업했는지(이전 양식에는 영주권 받은 때부터 외국에 나간 기록을 기재하게 되었음) △Part10 자녀에 관한 정보-신청자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데, 친자녀, 스텝자녀(재혼 경우), 입양한 자녀 등 모든 자녀들을 기입해야 한다 △Part11, #14-21 테러와 관련된 차원에서 묻는 질문-신청인이 대량학살 및 살해 등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는 질문 △Part11, #15는 신

청인이 군대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는 질문으로 대부분의 한국출생의 남성 신청자들은 한국에서 군생활 유경험자로 해당이 된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상 논란 양식지로 되어있는 편지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Part11 #37-45 미군 복무에 관한질문 △Part11, #46 Selective Service에 관한 질문과 안내-한국에서 미국에 이주한 18세-26세의 남성이 영주권자 되면 셀렉티브 서비스에 들어가는 의무가 있다. 셀렉티브 서비스를 하지 안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식, △Part12 신청인의 서명의 의미, △Part13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의 정보와 의미, △Part 14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류에 대한 '번역/통역'을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한 경우, 신청인과 통역/번역을 제공한 사람의 서명과 그 의미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의 박창형 소장은 "새 시민권신청서는 21쪽으로 늘어난 만큼 질문도 많아졌다. 이는 시민권신청자가 시민권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권 인터뷰도 지금까지는 최대 45분정도 걸렸지만 개정된 시민권신청서로 신청한 자들의 경우 1시간30분까지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의 신청서로 신청을 하려면 5월 2일까지 이민국에 제출이 되어 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말씀 부흥 대성회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아침)부터 3월 6일(목, 저녁)까지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213) 382-1450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홍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조성근 목사 초청 부흥성회

| 일시 : 2014년 2월 21일(금) 저녁 7:30  
22일(토) 새벽 5:30  
저녁 7:30  
23일(주일) 1부 8:00  
2부 10:00

| 장소: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재신목사) 1601. Art St. Bakersfield, CA 93312

| 문의: (661) 589-5791



### 예장합동 부활절연합예배 “불참”

#### 자체적으로...NCKK-한교연과 한기총 별도로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가 교단연합으로 치르는 올해 부활절연합예배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예배는 NCKK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중심이 된 교단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합동 등 일부 교단들이 별도로 갖게 됐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합동총회 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교단 자체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안명환 총회장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본 교단 임원회에서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지만 아직 총회 전체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연합기관(한교연)의 가입을 결의하거나 부활절연합예배 같은 교회연합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데 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40여개 교단으로 꾸려진 ‘2014년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예장합동 총회장을 상임공동회장에 참여하지 않고 미리 배정하는 등 연합예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부활절 연합예배 동참 여부

가 그동안 교회연합운동의 향방을 가능해온 잣대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향후 교회연합운동의 난맥상은 단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2006년부터 한기총과 NCKK가 주최하는 공동으로 하되 주관은 번갈아 가는 식으로 진행해왔으나 한기총이 내용에 빠지면서 2012년부터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합동총회 임원회는 또 ‘종교인 과세’입법과 관련, 예장고신 및 예장합신 등 3개 교단과 함께 ‘입법 재논의 요청’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오는 9월22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제99회 총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사로 거주교회(나학수 목사)에서 열기로 했다.

### 한국 교회 2014 전망

### ⑦ 예장 고신·합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은 이번 회기 슬로건을 ‘복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으로 정하고, 개혁주의 신앙의 확립과 다음세대 선교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신 총회는 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 최근 교단차원에서 신앙생활 수칙을 마련했다. 수칙내용은 ‘구도 있는 개인 경건생활과 건강한 교회생활에 힘쓴다’ ‘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예배로 신앙의 명가를 세운다’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총회분부와 학교 법인 세 기관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한다’ ‘남북의 평화통일과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위해 헌신한다’ 등이다.

해 최근 총회 국내전도위원회에 개척교회훈련원을 열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은 올해 ‘교단의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교육과 전도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성도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1일부터 서울과 경기, 충청, 경남 등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교육부흥을 위한 교사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이승구(합신대 조직신학) 교수, 박한석(

### 복음만이 살길이다... 다음세대·교단부흥 초점

교단 산하 학생선교단체인 학생선양운동(SFC)을 통해 20-30대 선교에도 힘을 기울인다. 현재 SFC의 전임간사 110여명이 국내 11곳과 해외 지부 8곳(중국, 일본, 몽골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115개 대학 2300여명, 전국 25개 지역 교회에서 2만여 명이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3명, 경기 및 인천 2명, 대구 2명, 전남·북 2명, 서울 1명, 부산 1명, 충북 1명 등 12명의 신입 간사서 선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2007년 말 시작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예장고신 총회장 주준태 목사는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 앞장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척자의 자질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

기독교와교사모임 대표) 집사, 한치호 (21세기 사역자 연구소 대표) 목사 등이 주일학교 부흥과 교사의 사명감 회복을 위한 강의를 했다.

3월에는 대구 등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전도세미나를 열어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사는 이주형 총회장과 김인심(하나님 품으로 전도코칭 훈련원 대표) 집사 등이다.

군 선교 활성화를 위해 군선교 사역자 발굴과 군선교 후원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예장합신 총무 박혁 목사는 “총회는 합신 신대원 군선교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3월에는 합신대 체를 군선교 체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소치 빛날 14명의 기독교선수 파이팅!”

####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2014 동계올림픽 선전 기원 예배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CCSK·대표회장 송용필 목사)는 5일 서울 평창동 서울지구초교회에서 김진욱 목사(2014 소치 동계올림픽 선전기원 예배)를 드리고 대회 성공 개최를 간구했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스포츠선교 관계자 등 400여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이번 대회가 복음전파의 국위선扬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우리 선수들이 승패와 메달 색깔을 떠나 최선을 다하기를 기원했다.

서울지구초교회 제1성가대가 ‘주는 위대하시도다’를 찬양하며 시작된 이날 예배는 신양과 축과 찬송, 설교와 기도회, 격려사와 축사, 대회소개 및 영상물 상영, 구호와 응원가 제창, 축도, 축하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사회는 김진욱 목사가 맡았으며 박진경 기하성 전 총회장이 대표기도를 하고 정영애 전 보디빌딩 국가대표 감독이 성경을 봉독했다.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강영선(순복음영산교회) 목사는 ‘최선을 다해 달려라’(빌3:12~14)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다”며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인 천국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라”면서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잘하신다”며 “예비하신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CCSK 총재 엄신형 목사는 인사

말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번 동계 올림픽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원순 예수교대한감리회 웨슬리협의회 이사장은 “한국 동계스포츠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동계스포츠 선교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나라의 안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간구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모두 일어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라는 구호를 제창한 뒤 “우리가 하나가 되어...”로 시작하는 응원가 ‘미션코리아’를 불렀다.

한편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두 71명이며, 이 중 14명이 크리스천이다.

### ⑧ 예장 백석·대신

지난해 예장개혁과 통합에 국내 세 번째 규모의 교단으로 입지를 굳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은 올해는 총회관 건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예장 백석 총회장 장중현 목사는 27일 “우리보다 작은 교단도 자체 총회관을 갖고 있다”며 “사명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총회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장

반기 중으로 미국 CRC교단(북미개혁장로교단)과 협력해 국내 목회자들에게 지도자 훈련 과정을 진행하는 등 목회자의 내실 다지기에 힘을 기울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은 올해 슬로건을 ‘변화와 성장, 더 큰 대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5개년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것으로 약속했다. 특히 지난 47회 총회에서 결의한 상비부서 개편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사업과 사역의 중복을 피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체

### 복음 전초기지 ‘총회회관’ 건립에 최대 역점

백석은 현재 서울 방배동 인근에 대지면적 320평(약 1057㎡)에 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의 총회관을 짓고 있다. 비용은 총 221억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장 백석 사무총장 이경욱 목사는 “지난해 10월 총회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 14억5000만원이 납부됐고, 40여 곳의 교회가 현금 128억원을 약정했다”며 “또 약정을 하겠다고 한 교회가 40여 곳이 있다”고 말했다. 예장 백석은 노회마다 총회관 건립 후원을 예산을 배정하고, 산하 교회와 단체에 총회관 건립 후원을 조직 할 계획이다.

또 올해 1학기부터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에 아시아신학연맹(ATA) 인준과정을 신설해 현장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주해와 교리 설교 등을 가르치고, 상

성과 리더십, 소통 세 분야로 분류해 상비부서를 재배치했다. 각 상비부서들은 향후 5년 간 사업계획을 작성, 총회 사업과 사역을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했다.

총회장 최승영 목사와 총회 임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각 노회를 순방해 총회회관 부채 당감에 주력했다. 성과 및 교회들이 월 10만원씩 현금 약정한 700여 개 노회를 마련했다. 또 전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총회 전도수첩’을 발간, 전국교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동성애합법화 및 종교평화법 제정, 종교인 과세 등 교계가 벌이고 있는 ‘반기독교 법안 저지 천만인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 조 목사 의혹 제기 폭로자들 후속조치 관심

#### 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 진상조사사특위 최종조사결과 승인 따라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최종조사 결과를 승인함에 따라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한 교회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속조치 대상은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과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한 일부 인사, 재판과 관련된 장로 등이다.

진상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또는 왜곡·과장된 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MBC PD수첩 등을 통해 이를 거듭 공개하는 등 조 목사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려 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책임은

문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 중 일부는 교회와 조 목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 김대진, 김석균 장로 등은 지난해 8월 초 교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기득 장로)에 이른바 ‘빠리의 나비부인’과 관련된 불륜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 윤리위는 8월 말-9월 초 차일석하 상욱 이종근 김대진 김석균 장로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진 장로는 “빠리의 나비부인”이 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하 장로가 사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어이 없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의 장로들은 윤리위의 이같은 조사내

용도 모두 유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장에 증거자료로 배포했다. 진상조사위는 ‘불륜’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의혹 당사자인 정기선씨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상당부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당회를 계기로 새 출발을 다짐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교회 지도부는 “교회와 더 이상 과거사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며 “중지부를 찍겠다”고 선포했다.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영훈 목사는 특히 “교회의 설립자이자 스승인 조 목사를 끝까지 잘 모시고 가겠다”면서 조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 세계성령증양협 새 대표회장에 정인찬 목사

사단법인 세계성령증양협의회의 새 대표회장에 정인찬 목사가(사진)가 선출됐다.

제26대 대표

회장 정인찬 목사는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박사학위 취득, 미주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인세계성령증양협회(KWMC) 대표회장, 국제성령복음화연합회 총회장, 휴스턴성령클럽 회장, 백석대학

교 목회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국제대표회장,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실무대표회장, 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기념사업회 대표회장, 백석신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제26대 대표회장의 취임식은 오는 21일(금) 오후3시 백석대학교 방배동 서울캠퍼스 목양동 대강당에서 갖는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b>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13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2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5-10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로 광역시 북구 문암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440-9000, Fax: (8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4:30 (월요일을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8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부흥: 오후 6:00 새벽2부예배: 오후 7:30 Tel: (82)-2646-3181-3, (8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4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2부예배: 오후 9:00 www.seongsil.or.kr Tel: (02)418-999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서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3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2(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저녁 7:00 Tel: (82)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영등포구 인사동 137 번지	<b>시은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수지구 죽전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151-051) Tel: (82)2-48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동로 17길 29(강일동)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2부예배: 오후 9:00 Tel: (82)2-786-6579, 새벽: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2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2-922-9221-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k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9:3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9 (140-04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새벽 5:30 새벽2부예배: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b>청주주요신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훈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b>뱅크비발리메이교회</b>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저녁, 12:00 금요심야기도회: 매일 새벽, 저녁, 12:00 금요일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AV. CARA BORO 1253, PAULISTA-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 BORO 1253, CAR. 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주일3부예배: 저녁 9:00 7:15중간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말)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 선교 펴기

## 필리핀/따우속 선교

201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3년 하반기에 필리핀 중부와 남부 지역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남부 잠보앙가 지역에서 9월 9일에 이슬람 반군단체 MNLF와 정부 간에 내전이 발생하였고, 10월에는 중부지역인 보홀 섬과 세부 섬에서 7.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1월에는 태클로반과 주변 섬에 강력한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어 해외 각국으로부터 도움이 손길이 많았습니다.

작년 9월 9일에 내전이 일어난 지희 잠보앙가 지역도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전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30곳의 대피소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돌아갈 보급자리를 잃어버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피난민 센터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 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피난민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학교 행사와 구호품을 나눠주는 일로 인하여 많이 바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필리핀의 남부 외진 곳에서 18년 넘게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5일: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보통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초등학생 들은 50~6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11월 초부터는 출석인원이 100여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때 나누어주는 간식과 선물을 받기위해 12월에만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반복

교에서 피리를 연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학부형 들은 자신들의 아이들 연주에 아주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12월 21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고등부, 청년부 친구 초대 행사  
고등부와 청년부는 초등부에 비

직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연회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들 피난민들을 위해 구호 헌금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이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텐트안의 맨 바닥에서 생활을 하여 노인들과 아이들은 늘 감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침대 폼(바닥에 까는 이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에 있는 팔로몬침례교회의 피난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작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아꼈습니다. 하루속히 필리핀 정부에서 난민들을 위한 보급자리를 마련해주길 기도합니다.

12월 26일: 시내의 종합 운동장의 피난민 1천 가정에 구호품 전달 (한국 코이카 주관)

한국 코이카 주관으로 피난민 1천 가정에 구호품을 전달할 때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구호품을 받을 가정을 선별하여 티켓을 나눠 주었는데, 그 티켓을 복사하여 하는 다시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코이카에서 제공해준 구호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귀하게 잘 사용되었습니다. 구호품을 전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지만 일부 무슬림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 모습도 다시 한 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있는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동역자님들 그리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잠보앙가에서의 생활과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필리핀의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마음이 붕 떠 있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2013년 12월만큼은 잠보앙가 지역의 분위기는 참으로 조용하게

동자들의 송금액으로 위안이 되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와 12월의 연말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이때 1년 동안 힘겹게 모은 돈을 거의 다 사용한다고 해도 된 말은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3년 중부와 남부의 잠보앙가 도시는 어느 때 12월과는 전혀 다를 정도로 조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잠보앙가는 이슬람 반군 MNLF의 두 번째 공격이 바글거리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가는 길목마다 검문소가 강화되어 사람들을 검문하기에 바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반군들이 교전을 하였던 지역에서 다시 발견되어 잠보앙가 지역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학교는 다시 휴교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치안이 안정되고 내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잠보앙가의 피난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 잠보앙가에서 사역할 때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 고등부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하여 특히 무슬림 학생들이 주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 헌타이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자주 피곤해하고 몸이 허약해지고 있음)

■ 선교지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⑥ 2차 전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시 전진의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오정윤 공운자 선교사 드림 이메일: ohgongtak@hanmail.net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tausugsarang



2013년 잠보앙가 도시 내전으로 인한 피난민 대피소

된 일이라 어떤 아이들인지 이미 파악하였지요. 가끔은 알미운 아이들이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무슬림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때에는 130여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석하였고 성경 암송대회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6학년 무슬림 여학생이 150구절 이상의 성경을 암송하여 1등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지만 나날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위로를 받습니다.

해 인원이 적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20여명 정도입니다. 그중 70% 정도가 무슬림 학생들입니다. 이슬람 종교에 있어서 신앙은 삶 자체입니다. 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주님의 희망을 봅니다. 몇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열심히 준비한 성극과 춤 그리고 찬양 예배에 친구들을 초청하여 40여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모임에 참석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2월 23일: 산타마리아 초등학교 피난민 437가정에 구호품 전달 (식료품과 침대 폼)

12만 명의 피난민들 중 40% 정도는 집이 심하게 부서지지 않아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60% 정도의 난민들은 살던 집들이 모두 부서져 돌아갈 곳이 없어 아



새희망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구호품 전달 (코이카 제공)

마음이 쓸쓸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12월 30일: 새희망 초등학교 170명 학생 가정에게 구호품 전달 (한국 코이카 제공)  
새희망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지나갔습니다. 시정에서 폭죽들이 범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필리핀 인구는 1억입니다. 인구 10분의 1 정도 인원이 해외에 나가 간혹, 기술자, 선원,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가 어려울 때 필리핀은 해외 필리핀 노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b>동부(NY, NJ)교회</b></p>		<p><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p>	<p><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 금요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8:30</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p>	<p><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부, 3부)</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회: 오후 12: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에벤에셀선교교회</b>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9:00</p>	<p><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0: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p>	<p><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p>	<p><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성경공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월요일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p>	<p><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미아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5:30(월-토)</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b>기타지역 교회</b></p>	<p><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IME: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b>벤델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월): 오전 7:00 주일2부예배(월): 오전 8:15 주일3부예배(월):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월): 오후 1:45 EIME: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데릭헌남부: 오후 1:30 초주일학교: 오전 10:00 유니: 유년: 오전 10:00 유니: 유년: 오전 10:00</p>
<p><b>살롱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지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8:00</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b>앵커리지얼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계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후 7:00</p>	<p><b>엘파스얼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p>
<p><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IME)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새벽기도(토, 주일)</p>	<p><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p>	<p><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한)</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병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템파조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IME)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공예/영어)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란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b></p>	<p><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b>오늘를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8. 사모의 인격 가꾸기(5)

사모의 인격은 스트레스 관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모교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30대와 40대가 다르고 50대 60대가 다릅니다. 나이별로 다르고 지방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격의 성숙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직면하는 사건은 물론 자주 겪는 사건과는 그 대응책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스트레스의 해소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여 풀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고비는 갱년기입니다. 거기에서 사춘기를 둔 자녀가 있더라도 한다면 그 가정은 더욱 침체되기 쉽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제법 큼니다. 호르몬에 이상 현상이 오는 것이므로 남편이나 주변 식구들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물론 어떤 것도 기대

간을 투자하며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은 운동도 아침저녁으로 하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식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후 면역체계가 아주 강해지게 되자 감기는 아예 겁나서 나의 곁에 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갱년기 증후군도 겁에 질렸는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건강하게 비행기를 20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서 사역하느라 지쳐 있는 사모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갱년기를 거쳐 가고 있는 사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에게서는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우리는 이미 감기균을 환영하여 감기증세에 충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균도 강한 면역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 도망가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도 이런 점은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극복하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미 우리의 말 앞에 굴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현실도 우리에게 주신 말의 특권을 사용하여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말에 대한 지침서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태어나서 배운 말들은 익숙하여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배운 말이거나 성장과정에서 이웃으로부터 습

## 인간에게 주신 말의 권세 활용...순종함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입으로 시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들의 갱년기는 더욱 더 어려운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며 목회의 일선에서 뛰는 사모들에게는 이것조차도 한 쪽의 그림입니다. 평소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 기억장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갱년기를 오히려 잘 선용하면 인생 후반부는 건강하고 발랄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갱년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같이 오는 법입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좀 있기는 하지만 남성에게도 옵니다. 카톡문화가 새로 나오면서 좋은 글 좋은 그림 좋은 음악이 유튜브에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나 자살율은 줄지 않고 있으니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필자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풍랑이 나의 인생 후반부에 찾아왔기 때문에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는 무색하리만큼 인식조차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여년 전의 일입니다. 갑작스런 혼수로 병원에 실려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의사의 청천벽력같은 진단에 오열을 하던 그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C형간염을 치료하지 못한 채 어렵고 힘든 생을 살다보니 간경화증이 된 것도 모른 채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9병의 수혈을 받고서야 정신을 회복하고 보니 천국은 아니고 아직 세상에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도 볼 수 있었고 자녀들의 얼굴도 아직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살기 위해 하지 않던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드디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 시

득된 언어들입니다. 의지가 발달되어 성숙할수록 선택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판단능력도 성숙합니다. 결단력도 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말하는 습관은 쉽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초기에는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후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에 근거한 말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혹독한 명령앞에서도 절절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절한 순종을 하기 위해 애쓴 모습이 드러납니다.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창22:5). 얼마나 절절한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귀히 사용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은 믿음에서 나온 말은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자신을 믿거나 혹은 환경을 바라보고 생각되는 대로 말을 내뱉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기도해도 안되고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현실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나오고 있는가? 나의 오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이었고 앞으로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나.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시7:6-10)

다윗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원수 대적이 있을 때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그러므로 모함을 당할 때도 사람과 원수를 맺지 않고 사람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

님 앞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욱 든든한 확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입니다.

### 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시7:11-17)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배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1)하나님께서

는 악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위해 이미 활을 당기셨고 그 손을 놓기만 하면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11). 2)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칼을 가십니다(12, 13). 3) 셋째, 악인은 반드시 자기가 만든 용덩이와 함정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주시고 나의 정직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 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8:1-2)

시8편은 경이로운 자연의 조화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 찬양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 우주만물의 조화를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연의 조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1)하나님께서서 약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 세상에 능력있는 사람도 많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많았는데 그 때마다 신비스럽게 힘센 원수들과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택하시어 크게 쓰시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강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 목 사람이 무엇이관대(시8:3-4)

시8편에서 다윗은 3000년전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도 "주의 하늘과 주의 배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보고" 인생을 생각하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8편의 핵심단어는 3절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묵상하다, 심사숙고하였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

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도 천하고 허물 많은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세상에 더 아름답고 관심을 갖으실 웅장한 피조물이 많은데 어떻게 이 별레같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 주시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8:5)

다윗은 피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는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시선과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만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특별히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지의 모든 피조물을 볼 때 묵묵히 귀하게 쓰임 받는 것들이 많습니. 공기, 물, 나무, 해와 달, 별들... 그런데 이런 피조물이 아무리 큰일을 하고 대단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 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시8:5-9)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 우주의 아름다움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이미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극히 높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 사람들이 범죄함으로써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것

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주님 안에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위엄 있을 바라보며 세상에 나가서는 용기있게 담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낮고 천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 미주오순절연합 총회교회가입 및 전도사임명 목사고시공고

2014년 본총회는 4차원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목회자육성및선교와상호협력목회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 자
- 4) 목사안수  
1. M.A., M.Div 는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2. B.A 는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 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에베소서 6장 2절
- 3) 설교: 자율적으로 1편제출( 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당일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소정양식)
- 4) 신앙명세서(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 4. 제출기간

- 1) 제출기간: 2014년 2월 28일 까지

## 5. 기타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 가능함(총재 조용기 목사) 봉사과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연계한 사회구제 활동)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5 Net-work 형성 한국- 미국)

##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318-9521 / 최명상 목사(323)317-3749

미주 오순절 연합총회(구 순복음) 총회장 김두경 목사 총무 석종규 목사



mission 선교의 창 (1)

### 일대일 사역을 통한 선교도전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사역이든 사업이든 뭔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요즈음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3Q전략이다. 질(Quality), 양(Quantity), 속도(Quick)를 의미한다. 특히 현대 전에서는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가 승패를 가름하기도 한다. 가상적 목표치를 위해 서두르다보면 질을 무시하고

사역하시면서도 중요할 때 일대일로 사람을 도우셨다.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을 부를 때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등 수없이 많은 예증이 있다. 이밖에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등 선지자나 사도들이 수제자에게 일대일로 맞춤형 양육을 하

되고 견고해진다. 다섯, 서로 간에 영적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동역자 관계가 형성된다. 여섯, 양육자는 목자의 심정으로 동반자를 돌보게 되므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한다. 일곱, 이 사역은 신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Multiplication) 증가는 배가의 증식 방법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첫해에는 양육자가 동반자 한 명을 돕기에 2명이다. 다음 해에는 2x2=4명이 된다. 그리고 10년째는 1,024명이며 20년째는 1,048,576명이 된다. 예수님의 나이인 33년째는 현재 지구의 인구 70억을 훨씬 초과한 8,589,934,592명이 된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년 내에는 단순 전도의 산술적 증가가 훨씬 앞선다. 그러나 13년째부터는 그 수치가 역전된다. 이후에는 제자훈련에 의한 기하급수적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배가된다. 일대일 방법은 어쩌면 속도 전쟁인 현대에 맞지 않는 전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수치적으로도 기적을 낳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대일로 양육된 사람은 주일예배에도 참석하기 급급하는 일반 회중과 같을 수 없다. 이들은 양육을 받고 또 자신이 직접 양육자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파괴력은 감히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명료한 사실 하나는 산술적 증가는 결코 인구 증가율이나 이슬람의 확장 속도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일대일 사역을 통한 선교도전! 이것은 위에 열거한 것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 성경 외에 하늘 아래 완전한 것이 있을까? 모든 것은 운영자의 묘미에 달려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방안이 이론처럼 설사 그 수가 양적으로 배가 되지 않고 질적으로 동반자가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선용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성경적이며 겨자씨와 모퉁이라는 대나무와 같이 자연의 특성을 닮고 있다. 나아가 이는 "원더리스트" 영화의 메시지와도 같은 영혼(One more soul)을 중시하며 시간이 갈수록 사역적 팽창성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다 사역의 핵심가치는 사람이다

#### 사람은 우선시 하지 않은 선교 프로젝트는 문제가 크다

우선 눈에 보이는 양에 집착하기 쉽다. 질이 없는 양은 없다. 양을 위해서는 질을 우선시 해야 한다. 질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빠르다고 다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리다고 다 느린 것이 아니다.

중국 성도에는 모죽(毛竹)이란 대나무가 있다. 이것은 처음 씨를 뿌린 후 거의 5년 동안 작은 순이 나오는데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5년째 말미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거의 30m에 이른다. 다 때가 있다. 열매는 때가 차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양을 치는 일은 모죽나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메사에 잔 쉰 수를 부리면 안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이에 일대일 사역 방법을 근간으로 한 선교는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일대일 말씀사역(One to One Bible Study)이란 무엇인가? 이는 한 사람의 양육자가 동반자를 일대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동반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사역방법의 근거는 성경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아브라함, 모세에게 나타나 각각 일대일로 말씀하셨다. 신약에 예수님도 대중적으로

였다. 또한 우리는 자연현상을 통해 이치를 깨닫게 된다. 환대에 있는 화초는 저마다 특수적 상황이 있다. 물이 필요한 것, 비료가 필요한 것 그리고 어떤 것은 시급히 벌레를 잡아주어야 하는 것도 있다. 현대 주인이 매 화초의 상황을 무시하고 물과 비료를 흘 뿌리며 전체적으로만 관리할 때에 화초는 결코 빠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 화초도 이리할진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오죽하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띤 존재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내면적으로 복잡하며 현실에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대중 속의 일원으로서 일반적 관리가 될 때 영적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 의사가 환자를 집단으로 치료할 수 없듯이 선교도 한 사람씩 살피며 전체를 보아야 한다. 그 방안으로 일대일 사역의 장점을 열거해 본다.

하나, 상대방에 대한 집중과 의사 전달이 용이하다. 둘, 동반자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셋, 공동체에서 숨겨질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과 상처들이 드러나고 치유될 수 있다. 넷, 개인의 형편에 따라 맞춤형 양육으로 동반자의 신앙이 체계화

이 사역의 특성은 수학에 비교된다. 수학에는 산술급수적 증가와 기하급수적 증가란 두 개념이 있다. 산술 급수적(Arithmetic) 증가란 매일 한 명씩 전도하면 1년에 365명이 된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3,650명이 된다.

년 수	단순 전도	제자 훈련
1	365	2
2	730	4
3	1,095	8
5	1,825	32
8	2,920	256
10	3,650	1,024
12	4,380	4,096
13	4,745	8,192
15	5,475	32,768
18	6,570	262,144
20	7,300	1,048,576
23	8,395	8,388,608
25	9,125	33,554,432
28	10,220	268,435,456
30	10,950	1,073,741,824
33	12,045	8,589,934,592

다. 33년 뒤에는 정확히 12,045명이 된다. 그러나 기하급수적

### 재작소개

### 시집 "뒤돌아 앉은 산"

저자 현대식 장로



사랑보다 뜨거운/가을 꽃 웃음소리/고운 색 물감들어/ 좁은 산길 돌아 가을길에 뿌려지고/산 노루 맑은 눈 호수에/꽃잎 향기 내려앉아/소슬바람/가을길에 서성이면/뒤돌아 앉은 산/가슴에 안고/고왔던 옛날 모습/ 길 옆 풀에 묻을 때/애뜻했던 옛정/눈가에 담깁니다(현대식 시인의 '가을 길')

삶을 저울질 하는 작가의 진솔함 곳곳에

현대식 시인(로스펠리스교회 장로)이 시집 '뒤돌아 앉은 산'(도서출판 영문)을 출간했다. '자연의 시인', '사미인곡의 시인' 등으로 불리는 현대식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만물을 보며 남다른 감각과 음률로 아름다움을 풀어냈다.

시인은 "봄은 녹아 뾰족이 한 생명 움트고, 찬 서리 내려 가을 길에 쌓이고, 마지막 잎새 떨어져 눈 속에 잠들어, 내일을 기다리는 생과 삶의 고뇌를 생각지 못했다. 필순 가까운 삶속에, 주님 주신 말씀 묵상하며 받은 씨앗으로 시집을 만들었다"고 서문을 통해 고백했다.

'뒤돌아 앉은 산'은 제 1부 '오면서 가는 봄날', 제 2부 '흰머리 갈대', 제 3부 '더내미 인생', 제 4부 '그리움', 제 5부 '하늘 문 여시고 이곳을 바라보소서'로 구성돼 총 83편의 시로 엮여있다.

백승철 목사(시인, 문학평론가, 에피포도예술인협회 대표)는 현 시인의 작품을 읽는 이들에게 "세월을 앞선 탓인지 삶을 저울질 하는 현대식 시인의 진솔함이 그의 작품 곳곳에 스며있다. 현 시인의 작품을 단순한 시로 읽지 말고 그가 살아왔던 한 생애를 연상하며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되새김하여 반사된 그림자를 따라 우리의 모습에서 일그러졌던 부분이 치료되는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현시인의 작품구도를 '자연서정-전이-그리움-고향풍경-본질로의 회귀'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식 시인은 미국 LA 시전(시와 예술의 전당) 동인, 에피포도예술인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 17회 에피포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시집구입에 관한 문의는 (323)464-1822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12면에서 계속) △가난에 억눌리고 굶주림 속에서 희망조차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헌신 하게 한다 △저렴한 수업료와 OUTREACH 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YWAM University of Nations의 정식 교육 훈련장으로 뛰어난 강사의 강의로 강의가 진행되며 UofN의 정식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선교 현지에서 자

생적으로 설립된 세계은혜선교회(WORLD GRACE MISSION)와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을 통해 추상적이지 않은 실재적인 선교의 전략과 현장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DTS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God's Nature and Character >God's Intention for Individuals, Peoples and Creation >God's Redemption: Sin and The Cross >God's Family: His Children & His Church >God's World: His

Call & His Commission Doing the Works of Jesus >YWAM: A Response to God. 한편 CDDTS를 협력하는 세계은혜선교회는 2005년 김현철, 이은혜 선교사가 어바인 온누리 교회의 파송으로 도미니카와 아이티 선교를 위해 세워진 단체다. 세계은혜선교회는 도미니카 열방대학의 20주 정규 CDDTS과정,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16개의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 4시간 강의를 듣고 2년에 수료증을 주는 CGNTV방송

신학교(현재 약 350명의 졸업생 배출)와 연간 6회의 4박5일 세미나를 통해 집중훈련해 2년 만에 수료하는 프로그램인 웨슬리신학교(현재 2년에 걸쳐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스페니시판 생명의 삶 발행(월 2,000부, 앞으로 10,000권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음), 아이티에서는 고아원 건립(120명정원)과 원생 교육, 아이티인을 도미니카 열방대학에서 훈련해 본국은 물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파송할 선교사 양성, 현지인 의료진과 현지 한인의료선교사들이

함께 하는 월 두 번의 정기의료봉사, 예수 영화 사역-매주 목요일 현지 교회나 학교 마을 회관에서 진행, 휴스턴서울교회의 후원으로 우물 사역을 계속하여 물이 없는 곳이나 오염된 곳에 깊은 우물을 파서 식수를 나누고 있음.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과 협력 현지에 교회를 계속 건축(8교회), 도미니카 현지인 가족 세미나 및 현지 목회자 세미나 진행, BIM을 제공 현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사역을 하는 세미나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CDDTS는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12주간의 강의와 6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8주간의 아웃리치로 진행된다. 학비는 수업료(숙식포함) 2천 달러로 아웃리치비용 DR과 아이티 지역 단기선교 기준) 1천달러 + 항공료 등이다. ▲문의:(213)247-9116(허승호 선교사, 박남수 장로), david-park1781@gmail.com, evergracekim@gmail.com (정리: 박준호 기자)

# 뉴욕새벽별장로교회

# 춘계 부흥사경회

**일 시:** 2월 28일(금) 오후8:30  
3월 1일(토) 오후8:30  
3월 2일(주일) 오전11:00

**강 사:**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강사: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뉴욕새벽별장로교회**  
NY Bright Morning Star Presbyterian Church

(담임 정기태 목사)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917-733-7387 / chungkitae@yahoo.com